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金 惠 貞

2001年 12月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權 淑 姬

金 惠 貞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金惠貞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印

委 員_____ 印

委 員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1年 12月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청소년기의 특징	4
2. 교복 변형에 관한 연구	8
3.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10
4. 체형 지각과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 연구	14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7
1. 연구문제	17
2. 측정도구	19
3.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24
IV. 결과 및 논의	27
1. 교복 변형	27
1) 교복 변형의 실태조사	27
2)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	33
3)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	37
2. 치수 만족/불만족	41
1) 치수 만족/불만족의 실태조사	41
2) 학교 유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48
3) 체형 지각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51
4)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55
3. 교복만족도	58
1) 교복만족도 평가차원	58
2)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0

3)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2
4)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3
5)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6
4. 교복 업체 치수체계 현황 조사	84
1)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84
2) 치수체계 현황	86
3) 수선요구 현황	94
V. 결론 및 제언	96
1. 결 론	96
2. 연구의 제한점	100
3. 연구결과의 적용 및 제언	101
 참고문헌	 103
부 록	111
ABSTRACT	142



표 목 차

<표 1> 여고생 교복 착용자 대상 설문지의 내용과 측정척도 및 출처	21
<표 2> 교복 업체 대상 설문지의 내용 및 출처	23
<표 3> 조사대상자의 교복 구입 및 일반적 특성	25
<표 4>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	28
<표 5> 교복 변형 부위	29
<표 6>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변형 정도	30
<표 7>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변형 정도	30
<표 8> 교복 변형의 이유	31
<표 9> 교복 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	32
<표 10> 교복 변형에 관한 견해	33
<표 11>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의 차이	34
<표 12> 학교 유형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35
<표 13> 학교 유형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36
<표 14>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의 차이	37
<표 15> 체형 지각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39
<표 16> 체형 지각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40
<표 17> 97년 국민 체위조사와 서울특별시 2000년 체격 현황과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신체치수 평균 비교	41
<표 18> 학교 유형에 따른 체형 지각의 차이	42
<표 19> 블라우스 구입 시 치수선택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부위	43
<표 20> 스커트 구입 시 치수선택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부위	44
<표 21>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	46
<표 22>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	46
<표 23> 학교 유형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	50

<표 24> 학교 유형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51
<표 25> 체형 지각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53
<표 26> 체형 지각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54
<표 27>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56
<표 28>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57
<표 29> 교복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59
<표 30> 교복만족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값	60
<표 31>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1
<표 32>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2
<표 33>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3
<표 34>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5
<표 35> 학교 유형과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의 차이	66
<표 36> 목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7
<표 37> 어깨너비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8
<표 38> 앞폭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69
<표 39> 뒤폭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0
<표 40> 가슴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1
<표 41> 허리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2
<표 42> 진동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3
<표 43> 블라우스길이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4
<표 44> 소매통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5
<표 45> 소매길이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6
<표 46> 스커트 허리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7

<표 47> 배들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8
<표 48> 엉덩이들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79
<표 49> 스커트길이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80
<표 50> 밑단들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81
<표 51>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	83
<표 52>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	83
<표 53>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85
<표 54> 치수규격의 차이	88
<표 55> 교복 업체별 호칭과 기본 신체부위	90
<표 56> 교복 업체별 블라우스 호칭과 기본 신체부위의 치수	91
<표 57> 교복 업체별 스커트 호칭과 기본 신체부위의 치수	91
<표 58> 교복 업체별 블라우스 제품치수의 차이	93
<표 59> 교복 업체별 스커트 제품치수의 차이	93
<표 60> 교복 업체별 수선요구 현황	95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문제의 구성 및 조사방법 18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여고생의 교복 변형현상을 치수 만족/불만족 및 교복만족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교복치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여학생 1007명과 5개의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01년 7월 18일부터 9월 20일에 실시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석, 백분율, 요인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χ^2 검정에 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 변형은 전체 응답자 중 67.3%가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형은 블라우스 보다 스커트에서 많았고 주로 줄이는 변형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에서는 어깨너비, 허리둘레, 블라우스길이부위 순으로, 스커트는 스커트길이, 주름, 엉덩이둘레부위 순으로 변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의 가장 큰 이유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로 나타났으며 교복 변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는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교복 변형이 많았으며 블라우스의 전 부위와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밑단둘레 및 주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는 마름/평균 지각이 비만 지각보다 교복 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부위별 변형에서는 블라우스의 소매길기와 스커트의 허리둘레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교복 각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을 살펴본 결과, 교복의 불만족은 작음의 불만족보다 큼의 불만족이 많았으며 스커트가 블라우스보다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큼의 불만족율이 높은 부위는 블라우스의 허리둘레와 스커트의 밑단둘레로 나타났으며, 작음의 불만족에서는 블라우스길기와 스커트의 배둘레 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블라우스는 목둘레, 앞품, 뒤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및 소매 길이와 스커트의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교복 치수에 대한 만족율이 높았으며 불만족에서는 블라우스에서 실업계 학생들이 큼의 불만족율이 높고, 작음의 불만족은 인문계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커트는 인문계 학생이 큼의/작음의 불만족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체형 지각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블라우스는 목둘레, 앞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및 소매통 부위에서, 스커트는 허리둘레와 배둘레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평균 지각은 비만 지각보다 만족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 지각은 마름/평균 지각보다 작음의 불만족율이, 마름 지각은 비만/평균 지각보다 큼의 불만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는 스커트의 허리둘레, 스커트길이 및 밑단둘레에서 변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들보다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하의 활동에 있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계 학생은 인문계 학생들보다 관리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는 비만이라고 지각한 학생이 평균이라고 지각한 학생보다 상의와 하의 활동에 있어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는 교복 변형 경험이 없는 학생이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하의 활동에 있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만족하거나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교복 업체별 치수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치수와 색상이 매해 달라져 같은 호칭 내에서도 재고와의 치수와 색상의 차이로 인해 교복 관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치수와 색상의 차이는 학생들이 교복 구입 및 재구입 시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인문계·실업계 여고생의 치수규격에는 3개의 업체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었으나 치수규격 차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개업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복 업체별 호칭 기본 신체부위 및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 호칭 기본 신체부위가 세분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수간격이 기본 신체부위의 크기에 대한 일률적인 증감으로 다양한 체형의 형태적 특징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칭체계가 업체별로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동일한 호칭 내에서도 업체별 제품치수의 편차가 크고 동시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부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I. 서 론

의복은 개인의 인격이나 교양, 취미,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착용자의 신분, 직업, 자아개념, 관심도, 가치관 등을 반영해 주는 무언의 언어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의 급격한 성장과 생리적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의 시기로 자아의식이 증대되어 일생 중 자신의 외모와 의복에 대하여 가장 높은 관심과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김윤희, 1991). 또한 이 시기는 심리적 관심이 외계에서 내계로 향하게 되므로 부모나 교사의 의존에서 벗어나 주관적 세계, 즉 자기확립을 가하며 각자의 특유한 개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최홍자, 1974).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착용하는 의복은 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통학복으로 착용하는 시간이 긴 만큼 그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개화기부터 1982년까지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성이 무시된 일률적인 교복을 착용하여 왔으나, 1982년 2월 정부의 중·고생 두발 자율화 조치와 1983년 교복 자율화로 인하여 청소년의 의복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교복 자율화 이후 청소년들이 활동적이고 기능적이며 개성존중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증가와 가계부담 증가 및 교복 사복착용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1986년 교복 착용이 재허용 되었다(안인희, 1990). 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부각되고 문교부에서 교복 착용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현재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복을 착용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교복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생의 교복은 자율화 이전의 교복보다는 색상이나 디자인 면에서 많이 다양해졌으나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와 개방된 교육체제하에서 욕구 및 감

각추구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더욱이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의 획일적인 교복형태를 지양하고 패션화된 디자인과 소재를 선호하면서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여고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당시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심미적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복을 착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주게 되어 교복에 대한 불만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복은 다른 기성복과는 달리 디자인, 소재, 봉제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3년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복만족도 및 외관은 맞춤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장혜경·김인숙, 1999).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은 교복을 개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기성교복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크며 다수의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수체계는 아직 불충분하다. 또한 교복 치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설정되어 있거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치수규격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김희련, 1994; 원경해, 1999) 여고생들은 착용 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게 되었고(박정희, 1998; 이해경, 2000; 이소은, 2001),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과도한 교복 변형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복 변형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동아일보, 1997.03.27; 이해경, 2000).

이처럼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교복 치수는 교복만족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개인이 긍정적이 삶과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교복 변형행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치수체계를 설정하는 위해서는 우선 교복 착용자가 착의 시 느끼는 치수만족도와 교복 변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복은 청소년기에 가장 오랜 기간 착용하게 되는 의복으로서 신체적·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례는 많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교복 디자인 선호도 및 개발에 대한 연구(김재희, 1987; 조진숙, 1990; 김미선, 1990; 유경숙, 1991; 김경순, 1993; 박현숙, 1994; 박영애, 1998; 백

승희, 2000)나 교복에 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김윤희, 1991; 박정희, 1998),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수희, 1988; 김정희, 1990; 이인자, 1992) 등이 주를 이루며, 교복 치수를 개선시키기 위해 행하는 교복 변형을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에게서 중요한 이슈인 교복 변형을 파악하고 교복 변형과 관련한 치수 만족/불만족과 교복만족도가 학교 유형과 체형 지각을 비롯한 교복 변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교복 업체의 치수체계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교복 변형, 치수 불만족 부위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교복 치수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교복 치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특징

1) 정서적·사회적 특징

청소년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의 성장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성장 급등 현상이 나타나며 성적으로는 급격한 성숙이 이루어져, 외모에 있어서는 성인과 별 차이가 없으나 아직은 정신적, 사회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부족하다. 이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동년배의 인정과 타인의 수용을 갈망하게 되며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Hurlock, 1973, 1978). 이는 동년배 집단에서의 지위나 호감획득에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그들의 욕구가 매우 강렬하여 다른 오락이나 즐거움까지 희생할 용의가 있으며 때로는 범죄까지 저지르기도 한다(Garrison, 1951). 즉, 청소년들은 집단에서 받는 경멸과 배척을 두려워하여 설혹 사회적으로 볼 때 무가치하고 금지되고 있는 것이라 할 지라도 집단적으로 할 때는 무리해가면서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정연석, 1988). 따라서, 정상적인 청소년은 동료집단에 동조하게 되며 집단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수단으로 의복이 사용되며 이러한 의복에 대한 만족, 불만족은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기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의 자기 확신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Ryan, 1966). 또한 이 시기에는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성적 관심이 증대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며,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관심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정도로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인지한다고 느낀다. 때문에 이 시기는 눈에 보이거나 직접 느낄 수 있는 의복, 신체적 외모, 혹은 매너로써 집단의 인정을 받으려 하며, 이러한 요인이 의복에 대한 관심을 생의 어느 시기보다 증가시켜 자신의 생활의 지배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이인자, 1992).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 어느 세대 보다 자기 의견을 자신 있게 주장하며 자신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고(도종수, 1995) 가장 적극적이어서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리낌없이 개성을 표출한다(한국일보, 1994.09.22; 섬유저널, 1995). 특히, 여고생들은 유행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에 대한 동조성, 수용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한 주변인들의 착장에 대한 관심, 패션에 대한 수용도 및 패션잡화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가장 높은 세대이다. 그러나 이들은 패션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 유행성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모방, 추종하고 특히 매체의 영향이 매우 커서 TV의 인기 있는 프로나 배우의 옷차림은 곧바로 10대의 착장에 영향을 미친다(김경희·김미숙, 1997).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이며 의복은 자신감의 획득, 동년배 집단과의 동조, 사회적 승인을 위한 도구 및 개성을 추구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상태가 그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며 등교할 때 교복을 착용하지만 일반 외출 시에는 다양한 사복차림을 하므로 교복과 사복의 이중구조 속에서 소속감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등교시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과 함께 복장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등교할 때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중·고등학생의 역할에 알맞은 복장규범을 기대하여 지나치게 눈에 띄는 복장을 지양하며, 청소년 시기에 알맞은 복장을 하도록 권유한다(이명희, 1999). 그러나 유행 및 심미성에 관심이 많고 개성추구의 욕구가 강한 여고생들에게는 이러한 엄격한 규제복장에 및 교육환경에 대해서 불만족(국민일보, 1997.01.16)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측의 이러한 규제에도 불

구하고 여고생들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혹은 ‘유행에 맞게 입으려고’의 이유로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고 있다(박정희, 1998; 이혜경, 2000; 이소은, 2001). 따라서 현재 다양해진 의생활 양식과 여고생의 정서적·사회적·심리적 특성을 의식하여 청소년기의 의생활 교육내용 및 복장규제에 대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징

청소년기는 청년기와 소년기를 총칭한 즉, 사춘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를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12~21세의 시기를 말하는데, Ryan(1966)은 12세부터 15세까지를 청년전기, 15세부터 20세까지를 청년후기로 나누었다.

여고생은 만 15세에서 17세까지에 해당하는 청소년 후기에 속하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변화를 많이 겪으며 자신의 용모나 신체변화에 민감한 집단이다. 신체적으로는 성장속도가 둔해지다가 16세 이후에는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성장곡선을 나타내면서 인체 각 부위의 불균일한 성장에 따른 체형변화가 나타나며, 몸의 굴곡의 차가 현저해지고 인체곡선이 부드러워진다. 이 시기에는 발육상태에 따라서 신체형태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며(권숙희, 1982) 성장속도가 감소되면서 신체비율은 성인과 거의 근접하게 되나 성인의 체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김혜경 등, 1994). 이때 남녀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며 여자는 남자보다 1~2년 정도 빠르게 성숙, 안정되며(노희숙, 1997), 피하지방이 현저하게 발달하고 허리둘레보다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가 크게 증가되어 여성다운 체형을 형성하게 된다(서추연, 1994).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여고생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의 신체변화 및 체형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므로, 체형에 맞지 않고 기능성이 떨어지는 의복을 착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여고생의 체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고생을 성인여성과 비교하

여 분석한 연구(손희순, 1989; 김혜경·권숙희·서추연, 1994; 장혜경 1999), 성장기·중학생과 비교 분석한 연구(서추연, 1994; 노희숙·이순원, 1995; 노희숙, 1997), 독립된 여고생의 체형을 분석한 연구(손원교, 1974, 1977; 김미숙·김경희, 2000) 등이 있다. 여고생의 체형을 성인여성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고생이 높이와 길이 항목에서는 성인여성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들레항목 치수가 성인여성의 그것보다 더 크며 또한 성인여성에 비해 여고생은 뒷품과 앞품에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김혜경 등, 1994). 그리고 이 들간의 정면체형의 형태적 차이가 있으며 크기 차이에 의한 형태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장혜경·김인숙, 1999). 성장기·중학생의 체형과 비교해 보면 여고생이 중학생 집단에 비해 높이보다 너비가 중요한 체형 분류요인이며, 어깨나 가슴형상보다 배면형상이 중요하고(서추연, 1994), 들레항목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가슴들레·엉덩이들레가 허리들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는(노희숙, 1997) 즉, 굴곡이 뚜렷해지기 시작하고 풍만한 여성적 체형을 갖게 된다(노희숙·이순원, 1995). 손원교(1974, 1977)는 15~18세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표준치수를 설정하고 연령별로 평균치 및 t 검증,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 지수표를 구하여 연령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각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15세를 전후로 하여 거의 성장이 완료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17세를 중심으로 한 의복 치수설정을 위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표항목을 키, 가슴들레, 어깨너비로 정하고 이 대표항목에서 다른 신체 부위를 회귀 추정함으로서 의복사이즈 안을 설정하였다. 한편 김미숙·김경희(2000)의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된 여고생의 신체에 맞고, 활동시 편리한 구조를 가지며 적절한 신체 균형미를 유지할 수 있는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 기존 원형의 착의실험 및 관능검사의 기능성평가를 토대로 여고생을 위한 원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성장기와 성장완료기의 경계점에 있는 여고생과 성장이 완료된 성인여성의 체형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 생산업체 및 교복제조업체에서는 제품 생산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함으로써 중학생 및 성인여성의 의복과 형태 및 치수에서 차별화된 의복으로 이들의 의

복 맞춤새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교복 변형에 관한 연구

교복이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재 교복은 편안함보다는 불편한 의복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심미성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고, 편안하지 못할 경우 교복에 대한 불만이 클 것이며, 나아가 학교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박영애, 1998). 이런 교복에 대한 불만족은 교복을 변형하여 입으려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유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학교측의 생활지도 선도차원에서 심각한 학교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모에 관심이 큰 청소년기의 여고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심리와 관심있는 소규모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교복 변형에 동조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있으며 교복 변형을 하나의 개성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또한 여고생들은 교복도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복 변형에 대해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혜경, 2000).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도 교복 변형 행동은 교복을 단순히 유니폼이라는 의미를 넘어, 청소년들이 하루의 절반정도를 착용하고 있는 하나의 의복으로 인식할 때 교복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교복 변형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여고생의 교복관련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연구’와 이혜경(2000)의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교복 변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할 때 변형의 의미를 내포하는 수선과 관

련된 선행연구를 포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복 변형(수선)의 경험이 있는 여고생은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는 82.3%, 이혜경(2000)의 연구에서는 1년간 교복을 변형한 응답자가 52.7%,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64.9%가 교복을 변형(수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수선)의 이유를 살펴보면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바느질한 곳이 뜯어져서’, ‘유행에 맞게 입으려고’의 순이며, 이혜경(2000)의 연구에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수가 맞지 않아서’, ‘유행’의 순이었고,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자기 체형에 맞게 고치면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므로’, ‘교복이 너무 크게 나와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길이가 너무 길어서’의 순으로 교복 변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연구에서는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친다’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런 결과들을 살펴볼 때 고등학생들이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거나, 치수가 너무 크게 나오는 등 치수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박정희의 연구가 1998년도에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 비해 변형빈도가 높은 이유로는 착용기간이 긴 추동복을 조사품목을 사용하였고 변형 경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변형(수선)의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 연구에 비해 교복 변형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 학교 유형 및 성별에 따른 교복 변형(수선)을 살펴보면 교복 변형(수선) 빈도에서는 강북지역 학생이 강남지역 학생보다(이혜경, 2000; 이소은, 2001), 강서지역 여고생이 강남과 강북의 여고생보다(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남녀공학 여학생보다(이혜경, 2000), 여학생이 남학생보다(이소은, 2001) 변형(수선) 빈도가 높았다. 변형(수선) 경향에서는 강남지역과 남녀공학 학생은 스커트 길이를 줄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강북지역과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스커트를 짧게 변형(수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혜경, 2000; 이소은, 2001).

이렇게 교복 변형 현상이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을 하나의 비행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교복 변형을 하는 학생들의 특징에 관한 조사에서는 이들은 특별한 특성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활발하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한다’, ‘개성이 강하다’의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이 단순히 비행 및 저항행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표현방식이라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복 변형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학생들은 교복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활동성과 미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박정희, 1998).

교복 만족의 여러 요인 중 교복 치수의 불만족이 변형의 이유로 많이 나타났다기 때문에 교복 변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복만족도를 치수만족도와 일반적인 교복만족도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1) 치수만족도

우리나라 여고생들은 대부분 교복착용 집단으로서 획일적 디자인의 대량 생산제품에 의생활을 의존하고 있다. 디자인, 소재, 봉제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된 현 상황에서 교복의 외관은 맞춤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장혜경·김인숙, 1999). Hogge 등(1988)은 기성복 구매자들이 의류선택에서 디자인, 색상 및 스타일 보다 맞춤새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기성 교복 업체의 치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설정되어 있어 학생들은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김덕하, 2000), 이러한 불만족은 교복을 변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박정희, 1998; 이혜경, 2000; 이소은, 2001). 김덕하(2000)는 현재 교복은 더 이상 맞춤형 형태가 아닌 전문 기성복으로서 개별치수에 의한 주문제작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의 치수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치수적합성이 높은 교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착용자의 착의 시 느끼는 치수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고생들은 중학생의 급격한 성장과는 달리 완만한 성장곡선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의 라인을 살린 교복을 착용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으므로(박영애, 1998; 박정희, 1998) 교복 치수는 여고생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교복 치수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치수규격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김희련, 1994; 김덕하, 2000) 여고생들이 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중학생에 대한 교복치수를 조사한 연구에 비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 치수조사와 치수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여고생들의 치수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더욱 필요하며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치수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학생들이 교복 치수에 불만사항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김희련(1994)은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체형별로 세분화하였으면 좋겠다 (30.62%)’, ‘바지통이 너무 크다(16.87%)’, ‘너무 크지 않고 몸에 잘 맞았으면 좋겠다(9.38%)’의 의견이 많이 나왔으므로 이에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치수체계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박정희(1998)의 여고생의 교복착용 실태조사에는 교복의 치수가 커서 수선을 하였으며 교복 착용 시 불편한 부분으로 어깨 및 소매부분, 허리부분, 목둘레부분 순으로 나타났다. 김덕하(2000)는 여중생들의 교복착용 실태 조사에서 치수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 부위에서 40~50% 정도를 차지해 교복치수가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설정되어 불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업체 제품치수에 대해 치수만족도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부위로는 재킷인

경우 허리둘레, 어깨너비 및 소매길이를 나타냈고 스커트는 스커트길이,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로 나타냈다. 이는 교복치수의 과도한 여유량 설정과 현재 몸이 가늘어 보이는 슬림라인의 fit형을 선호하는 추세가 치수만족도에 반영된 결과라고 하였다. 김화순(2001)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 교복의 상하의 길이에 대해 불만족의 의견이 높았다.

교복 치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봉화(1979)는 남자중고생 교복의 치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높은 신체 성장률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체형별로 치수를 세분화하지 않고 교복을 제작하고 있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으며, 학생 기성복 치수 개발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치수를 더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교복 치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희련(1994)의 남자중학생 교복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에서 교복 업체의 치수 사용현황 조사 결과 치수규격은 직접계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호칭설정의 기준부위가 업체마다 통일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부위의 패턴 실측치 또한 업체별·호칭별로 일정하지 않게 나타났다. 김덕하(2000)는 가장 많이 착용하는 4개의 교복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동일한 호칭에 대한 각 부위 제품치수가 업체별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호칭에 따른 증감분 편차도 각 업체마다 다르게 나타나 급격한 치수에 민감한 여중생들의 교복 구입 시 어려움을 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원경해(1999)는 교복 업체별 직접면담을 통한 설문조사와 여자중학생의 신체계측을 통하여 신장은 5cm 등간격, 가슴둘레는 3cm 등간격의 상관분포도를 분석하고 신장과 가슴둘레로 회귀분석을 이용한 허리둘레의 추정치를 산출하여 25개의 교복 치수를 설정하여 교복 치수의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2) 교복만족도

청소년기는 의복이나 외모를 사회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큰 관심과 흥미를 나타낸다. 이 시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이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이 주는 좋은 느낌이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애란·김양진, 1996). 즉, 자신의 의복에 만족한 상태일 때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되는 반면, 자신의 의복이 초라하거나 동료의 의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불안감을 느끼고 동료를 회피하려 하며, 자기비하의 현상까지 생긴다(김순화, 1992). 구자명·이명희(1994)의 연구에서는 의복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며 과업을 수행하려는 의욕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의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므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이상희, 1996). 선행연구에서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박찬혜(1981)의 연구에서는 41%, 김재희(1987)의 연구에서 37.6%, 이수희(1988)의 연구에서는 65%, 김정희(1990)의 연구에서는 64%, 김경순(1993)의 연구에서는 41.2%,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는 41.5%의 학생이 불만족을 표시했다. 교복의 불만족 이유로 가장 큰 것은 '활동에 불편을 느낀다'였으며 다음으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였다(김춘식, 1981; 김미선, 1990; 조진숙, 1991; 김경순, 1993; 김혜영, 1993). 교복의 만족 이유로는 '단정하고 학생다워 보이므로'가 가장 많았다(이수희, 1988; 김경순, 1993; 박정희, 1998). 한편,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는 불만족의 이유로 '디자인이 유행에 뒤떨어지므로'가 19.2%로 가장 높았으며, '기온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관리가 불편하므로', '학생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음으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승희(2000)의 연구에서 교복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원인은 ‘예쁘니까’였고, 불만족하는 원인으로서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서’로 교복에 대한 만족·불만족 원인이 심미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학교 교복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교복 디자인의 미적인 측면과 활동성 및 교복 맞춤새에 대한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복의 만족 및 불만족의 이유로 활동성과 디자인 측면이 많이 나타났고 교복만족도 요인에서 기능성과 심미성 및 유행성이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이소은, 2001) 이를 개선하여 교복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4. 체형 지각과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 연구

의복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해 스타일이 결정되며, 그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 모습을 나타낸다.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은 사회적 이상적인 신체 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이 갖고 있는 기능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 된다(Kaiser, 1990). 의복 착용자가 의복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도는 신체적 만족도와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체적 만족도는 체형과 관련되어 형성된다(정재은, 1993).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마른 것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여(임영희, 1989; Schauss, 1987; Ponton, 1995; 박우미, 1993; 황선희 등, 1998; 최봉순, 1998; 남윤자·이승희, 2001), 자신의 체형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실제보다 왜곡·과장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백현순, 1983; 김용주, 1988; Moses 등, 1989; 정재은·이순원, 1993; 박영숙 등, 1994; 김경희·임양순, 1995; 김들련, 1995; 박영숙·이연화·최경숙, 1995; 임양순, 1996; 황성희 등, 1998; 최봉순, 1998; 이요원·임양순, 1998). 또한 자신의 체형이 날씬하다고 인식할수록 현재 체형에 만족

하고 뚱뚱하다고 인식할수록 현재 체형에 불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남, 1982; 김용주, 1988; 임영희, 1989; 정재은·이순원, 1993; 이요원·임양순, 1998). 한편, 박선영(1998)은 주관적인 신체이미지와 의복 착용 스타일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맞고, 몸매를 드러내는 의복을 착용하는 반면, 신체이미지가 비만군에 속하는 성인여성은 여유 있게 몸에 맞는 스타일의 의류 품목을 통해 신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을 만들어 감으로써 바람직한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영주·임숙자(2001)의 조사에서도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의복의 맞춤성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중 인지체형이 신체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며(Douty·Brannon, 1984; Lennon, 1988; 김용숙, 1990; 박우미, 1993; 구양숙·추태귀, 1996; 정재은·남윤자, 1998; 남윤자·이승희, 2001) 신체만족도는 다시 의복 맞춤성·만족도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Frederick, 1977; McLean, 1978; 이영운, 1981; 김미영, 1984; 김양진, 1992; 구자명·이명희, 1994; 이연희, 1996; 황진숙, 1997; 이명희·이은실 2000; 이영주·임숙자, 2001). 한편,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신체이미지의 만족도는 교복 변형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 따라서 체형 지각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만족도 및 교복 변형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한편, 학교 유형 또한 체형 지각과 함께 청소년의 의복 착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소한 문제 행동이나 심각한 일탈행동은 모두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많이 일으키며(배용식, 2000),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질서조직과 규율에 대하여 더 지각한다고 하였다(김선혜, 2000). 또한 인문계 학생들보다 실업계 학생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1990).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위비행정도가 높을수록(이남범, 1985; 허정아, 1997; 이은실·이명희, 1999),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고교생일수록(백선영·이선재, 1999) 의복 착용 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안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행성에 치중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탈행동을 많이 할수록, 규제복장에 긍정적이거나 착용도가 높으며(홍선옥, 1998; 허정아, 1997). 유행에 관심이 많을수록 교복을 변형하여 입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냈다(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체형 지각과 학교 유형별로 교복 변형과 그와 관련한 치수 만족/불만족 및 교복만족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체형 지각과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 및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교복 변형을 파악하고 교복 변형과 관련한 치수 만족/불만족과 교복만족도가 학교 유형과 체형 지각을 비롯한 교복 변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한편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복 업체의 치수체계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여고생들의 교복 변형 실태를 조사하여 교복의 각 부위 치수에 대한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파악하며, 학교 유형 및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여고생들의 치수만족도를 조사하여 교복 각 부위 치수에 대한 만족/불만족 실태를 파악하며 학교 유형 및 체형 지각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규명한다. 또한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여고생들의 교복만족도를 조사한 후 학교 유형 및 체형 지각에 따라 교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규명한다. 또한 교복 변형 및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4> 교복 업체별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치수체계 및 수선 요구 현황을 조사하여 현행 교복 치수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여고생들의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1> 교복 변형

- 1-1 교복 변형의 실태조사
- 1-2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 차이 규명
- 1-3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 차이 규명



<연구문제 2> 치수 만족/불만족

- 2-1 치수 만족/불만족 실태조사
- 2-2 학교 유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 차이 규명
- 2-3 체형 지각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 차이 규명
- 2-4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 차이 규명



<연구문제 3> 교복만족도

- 3-1 교복만족도 평가차원 규명
- 3-2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만족도 차이 규명
- 3-3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만족도 차이 규명
- 3-4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 차이 규명
- 3-5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 차이 규명



<연구문제 4> 교복 업체 치수체계 현황 조사

- 4-1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조사
- 4-2 치수체계 현황 조사
- 4-3 수선요구 현황 조사



· 조사대상 :
제주지역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여자 재학생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통계방법 :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χ^2 검정, 일원분산분석,
t-test 검정



· 조사대상 : 교복 업체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한 업체 대표 및 직원
인터뷰

< 그림 1 > 연구문제의 구성 및 조사방법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 2유형(교복 착용자 대상 설문지와 교복업체 대상 설문지)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1) 교복 착용자 대상 측정도구

교복 착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는 여고생들의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 교복만족도, 교복 구입·재구입에 관한 사항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부록 1> 참조). 질문항목들의 내용, 측정척도 및 출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교복 변형은 교복 고친 경험 유무, 교복 고친 부위(블라우스, 스커트), 고친 장소, 고치는 이유, 고치지 않은 이유, 고치는 것에 관한 응답자의 견해,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 등 7개 측면에서 질문항목들이 포함되었다(<표 1> 참조). 교복 고친 경험 유무, 교복 고친 장소, 고치는 이유, 고치지 않은 이유, 고치는 것에 관한 견해 및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를 묻는 6개의 측면의 문항들은 응답내용들을 제시하여 그 중에서 응답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고르게 하는 선택 강요형으로 측정되었고, 교복 고친 경험 유무와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의 문항을 제외한 4개의 질문항목이 복수응답 되었다.

교복 고친 부위는 7점 평정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즉, 교복을 고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내에서 블라우스 10개 부위(목둘레, 어깨너비, 앞품, 뒤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 길이, 소매통, 소매길이)와 스커트 6개 부위(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주름)를 제시한 후 각 부위와 관련하여 “고치지 않음”(4점)을 기준으로 “매우 많이 줄임”(1점), “많이 줄임”(2점), “약간 줄임”(3점) 그리고 “약간 늘림”(5점), “많이 늘림”(6점) “매우 많이 늘림”(7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복 변형이란 “교복의 실루엣이나 길이 또는 품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수선하는 것”으로 이혜경(2000)의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정의를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치수 만족/불만족은 교복 구입 시 치수선택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 부위와 교복 착용 시 치수에 대한 불만점과 개선 및 요구사항 등 3개의 측면의 질문항목들이 포함되었다. 교복 구입 시 치수선택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부위에 관한 문항은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선택 강요형으로 측정되었다. 치수에 대한 불만점과 개선 및 요구사항의 질문은 자유응답형(개방형)으로 측정되었다(<표 1> 참조).

부위별 치수만족도는 7점 평정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블라우스 10개 부위(목둘레, 어깨너비, 앞폭, 뒤폭,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 길이, 소매통, 소매길이)와 스커트 5개 부위(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를 제시한 후 “매우 크다”(1점), “크다”(2점), “약간 크다”(3점), “적당하다”(4점), “약간 작다”(5점), “작다”(6점), “매우 작다”(7점)에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큼의 불만족”은 1(매우 크다)에서 3(약간 크다)까지 응답한 경우, “만족”은 4(적당하다)에 응답한 경우, “작음의 불만족”은 5(약간 작다)에서 7(매우 작다)까지 응답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교복만족도는 디자인 및 유행성, 활동성, 품위 및 안락감, 관리성, 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총 32개 문항을 선행연구(이송자, 1980; 이상희, 1996; 이혜경, 2000; 최종명·김희숙, 2000)에서 발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문항은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응답자의 구입 및 재구입에 관한 사항은 교복 구입형태, 구입 시 영향력 행사자, 상표명, 재구입 장소 및 재구입 장소로 선택한 이유, 벌수, 착용하고 있는 호수 총 8개의 문항들을 구성되었으며 이 질문항목들은 자유응답형과 선택 강요형으로 측정되었다. 상표명, 재구입 장소 및 재구입 장소로 선택한 이유의 문항들은 복수응답 되었다(<부록 3> 참조)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은 학교, 학년, 신체치수(신장,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체형 지각 및 가족월수입 총 8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질문항

<표 1> 여고생 교복 착용자 대상 설문지의 내용과 측정척도 및 출처

연구변인	질 문 항 목	측정 척도	출 처
교복 변형	· 교복 고친 경험	선택강요형	연구자
	· 교복 고친 부위: 블라우스(목둘레, 어깨너비, 앞품, 뒤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 길이, 소매통, 소매길이) 스커트(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주름)	7점 평정척도 선택강요형	김덕하(2000) 연구자
	· 교복 고친 장소	선택강요형(복수응답)	이혜경(2000) 연구자
	· 교복 고치는 이유	선택강요형(복수응답)	
	· 교복 고치는 것에 관한 견해	선택강요형(복수응답)	
	· 교복 고치지 않은 이유	선택강요형(복수응답)	연구자
	·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	선택강요형	박정희(1998) 연구자
치수 만족/불만족	· 교복 구입 시 치수선택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부위	선택강요형	김덕하(2000) 연구자
	· 치수 만족/불만족 부위 블라우스(목둘레, 어깨너비, 앞품, 뒤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 길이, 소매통, 소매길이) 스커트(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7점 평정척도 선택강요형	김덕하(2000)
	· 치수에 대한 불만점과 개선 및 요구사항	자유 응답형	김덕하(2000) 연구자
	· 교복 구입 시 영향력 행사자	선택 강요형	김덕하(2000) 연구자
구매 및 재구매 관련사항	· 교복 구입형태, 교복의 상표명	선택강요형(복수응답)	연구자 연구자
	· 교복 재구입 장소		
일반적 사항	· 교복(하복) 구입 별수	자유 응답형	김덕하(2000)
	· 교복(하복)의 호수	자유 응답형	
	· 학교명, 학년, 가족 월수입	자유 응답형	
	· 신장, 체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선택강요형	
	· 체형 지각	선택강요형	

목들은 개방형과 선택강요형으로 측정되었다. 학교 유형은 응답된 학교명을 확인한 후 연구자가 계열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체형 지각은 “자신이 어떤 체형에 속한다고 생각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서 비만 체형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을 비만 지각, 평균 체형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을 평균 지각, 마른 체형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을 마른 지각으로 구분하였다.

2) 교복 업체 대상 측정도구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연구자가 업체 대표 및 직원들을 인터뷰하는데 이용되었으며, 교복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치수체계 현황, 수선요구 현황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부록 2> 참조) 질문항목들의 내용 및 출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교복 생산/판매 일반적 현황은 취급기간, 취급대상지역, 판매 시 강조하는 장점, 교복 판촉 방식, 학생들의 불만족 및 건의사항 수렴방식, 교복의 가격(블라우스, 스커트), 생산방식(상의, 하의), 판매방식, 패턴제작자 수, 패턴제작자의 평균경력, 패턴 제작 방법, 생산하는 치수규격 설정기준(상의, 하의), 생산 및 판매 시 계측 부위(상의, 하의)의 질문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판매 시 강조하는 장점, 교복 판촉 방식, 학생들의 불만족 및 건의사항 수렴방식, 교복(하복)의 가격(정가, 할인가)에 관한 질문의 결과는 <부록 4>에 제시되었다.

치수체계 현황은 매해 색상 차이 유무, 상·하 색상 차이 유무, 매해 치수 차이 유무, 인문계·실업계 치수규격의 차이 유무, 중·고등학생의 치수규격의 차이 유무, 생산·판매하는 교복의 호칭 방식 및 수, 교복의 기본 신체 부위, 최빈 판매 호칭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매해 치수규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품치수 계측 시 재고 제품치수를 계측하여 현 제품치수와 비교하였다. 제품치수는 업체대표의 양해를 구한 후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각 부위를 직접 계측하였다. 계측항목은 교복 치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위로 김덕하(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계측항목 중

블라우스의 목둘레를 제외한 어깨너비, 앞폼, 뒤폼,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및 소매길이와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밑단둘레 및 스커트길이를 계측하였으며 스커트의 주름에서도 변형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주름박음선 길이를 계측항목에 포함시켰다. 계측방법은 김덕하(2000)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측하였으며 그 방법은 <부록 5>에 제시되었다.

수선요구 현황은 수선요구 부위(블라우스, 스커트), 수선 요구 수용 범위, 수선요구와 유행 경향과의 관련 여부, 수선비용 등의 질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2> 교복 업체 대상 설문지의 내용 및 출처

연구변인	질 문 항 목	출 처
교복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 취급기간, 취급대상지역, 패턴제작자 수, 패턴제작방법	김희련(1994)
	· 불만족/건의사항 수렴방식, 생산방식, 패턴제작자의 평균 경력, 생산하는 치수규격 기준, 생산 및 판매 시계측부위	김덕하(2000) 연구자
	· 판매 시 강조하는 장점, 교복 판촉 방식, 교복(하복)의 가격, 판매방식	
치수체계 현황	· 매해 색상 차이 유무(이유 및 대처방안) · 상·하 색상 차이 유무(이유 및 대처방안) · 매해 치수 차이 유무(이유, 방향, 유행성 관련여부, 교복 치수와 판매량과의 관련 여부) · 인문계·실업계 치수규격의 차이 유무(차이, 이유, 차이의 필요성 및 그 이유) · 최빈 판매 호칭(인문계·실업계 최빈 판매 호칭의 차이 유무, 차이 및 그 이유)	연구자
	· 중·고등학생의 치수규격의 차이 유무(차이 및 이유) · 생산·판매하는 교복의 호칭 방식 및 수 · 교복의 기본 부위	김덕하(2000) 연구자
수선 요구 현황	· 수선요구 부위 및 정도(인문계·실업계 수선요구 부위와 정도의 차이 및 이유) · 수선 요구 수용 범위 · 수선요구와 유행 경향과의 관련 여부 · 수선비용(수선비용 책정)	연구자

3.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 교복만족도, 교복 구입/재구입 및 조사대상자 일반적 사항과 관련된 설문에 대한 조사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고생으로 학교 유형을 고려하여 인문계 2개교와 실업계 3개교를 선정하여 총 5개의 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학생들이 응답하기에 부담이 없는 기말고사가 끝나 여름방학 시작하기 1주일전 2001년 7월 18일부터 21일 사이로 수업진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교사의 양해를 얻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개 학교에서 각 학년당 80부씩 해서 각 학교에 240부를 배부하여 총 1,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에서 교복을 물려받아 구입해 본 경험이 없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193부를 제외한 총 1007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교복 업체 치수체계 현황의 조사는 교복 착용실태 조사 중 착용상표에 관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순위 5위안에 들어있는 업체 5개를 조사업체로 선정하였다(<부록 3-2> 참조). 조사는 2001년 9월 6일부터 20일 사이로 조사업체로 선정된 대기업 교복업체 3군데와 중소기업 2군데를 직접 방문하여 대리점 대표 및 직원과의 인터뷰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내용은 연구자가 간단히 적는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교복 구입 및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조사대상 학교는 총 5개교의 1007명으로 인문계 2개교(J, S 고등학교)의 461명(45.8%)과 실업계 3개교(A, P, J' 고등학교)의 546명(54.2%)으로 실업계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은 1학년이 384명(38.1%), 2학년이 310명(30.8%), 3학년이 313명(31.1%)으로 1학년의 빈도가 많았다. 체형 지각은 평균 체형 지각의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마름 체형 지각보다 비만 체형 지각의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남윤자·이승희, 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교복의 구입형태에서 맞춤복은 25.6%에 비해 응답자의 74.1%

<표 3> 조사대상자의 교복 구입 및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학 교	J 고등학교	229	22.7	
	S 고등학교	232	23	
	A 고등학교	178	17.7	
	P 고등학교	224	22.2	
	J' 고등학교	144	14.3	
학교유형	인문계 고등학교	461	45.8	
	실업계 고등학교	546	54.2	
학 년	1학년	384	38.1	
	2학년	310	30.8	
	3학년	313	31.1	
체형 지각	비만 지각	267	27.8	
	평균 지각	599	62.4	
	마름 지각	94	9.8	
구입형태	맞춤복	256	25.6	
	기성복	740	74.1	
	맞춤+기성복	3	0.3	
구입 별 수	블라우스	1 벌	276	27.6
		2 벌	635	63.5
		3 벌	41	4.1
		4벌이상	48	4.8
	스커트	1 벌	818	81.8
		2 벌	159	15.9
		3 벌	12	1.2
		4벌이상	11	1.1
가족월수입	100만원 미만	253	31.6	
	100~200만원 미만	338	42.3	
	200~300만원 미만	145	18.1	
	300만원 이상	65	8	

*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에 해당하는 740명이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복의 기성복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상의와 하의를 한군데서 구입하지 않고 학생기호에 맞추어 맞춤과 기성복형태를 동시에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구입 별 수에서 블라우스는 2벌을 구입한 경우(63.5%)가 가장 많았으며, 반면 스커트는 1벌을 구입한 경우(81.8%)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하복이라는 점에서 잦은 세탁으

로 인해 번갈아 입기 위해서 블라우스는 2벌을 구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가족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42.3%)이 가장 많았다. 한편 교복 구입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은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3.2%,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한 경우는 27.5%로 나타났다(<부록 3-1> 참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백분율, 요인분석(Factor Analysis), t-test, 일원분산분석,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교복 변형(변형의 실태, 학교 유형과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 규명), 치수 만족/불만족(치수 만족/불만족의 실태, 학교 유형, 체형 지각과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규명), 교복만족도(교복 만족도 평가차원 규명, 학교 유형, 체형 지각, 교복 변형 및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규명) 및 교복 업체 치수체계 현황 조사(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치수체계 현황, 수선요구 현황)에 관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교복 변형

본 연구의 제시된 <연구문제 1-1>, <연구문제 1-2>, <연구문제 1-3>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었다.

1) 교복 변형의 실태조사

교복 변형의 실태는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 교복 변형 부위, 교복 변형 및 변형 안함의 이유와 견해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연구문제 1-1>)는 다음과 같다.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는 <표 4>와 같이 전체 67.3%가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하복을 처음 입기 시작한 1학년이 64.3%가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교복 변형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년에 따라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과 교복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결과들은 <부록 6>에 제시되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

변형 경험 학 년	있다 N(%)	없다 N(%)	합 계 N(%)
1 학년	245(64.3)	136(35.7)	381(100)
2 학년	208(67.3)	101(32.7)	309(100)
3 학년	223(71.2)	90(28.8)	313(100)
전 체	675(67.3)	328(32.7)	1003(100)

(1) 교복 변형 부위

교복 변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내에서 교복 변형 부위와 정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5>, <표 6>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복 변형 부위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블라우스 부위보다 스커트 부위에서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다. 블라우스에서는 어깨너비·허리둘레(21.9%)부위에서 치수 변형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블라우스길이(21.0%), 소매통(20.9%), 가슴둘레(19.7%), 앞폭·뒤폭(18.3%), 진동둘레(17.4%), 소매길이(16.9%), 목둘레(6.5%)부위 순으로 치수 변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블라우스의 목둘레 부위에서 변형율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변형하기 힘든 부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는 본 연구의 학생들의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 및 개선사항에 관한 조사에서 ‘목둘레 부위가 커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이 부위에서는 수선이 힘들다’의 의견들이 나타나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스커트는 스커트길이에서 82.0%의 변형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주름(69.5%), 밑단둘레(63.2%), 엉덩이둘레(51.8%), 스커트 허리둘레(40.3%), 배둘레(33.1%) 부위 순으로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교복 변형 부위

n=628 (주름 제외)

변형 경험		변형	변형 안함
변형 부위		N(%)	N(%)
블 라 우 스	목 돌 레	41(6.5)	587(93.5)
	어깨너비	183(29.1)	445(70.9)
	앞 품	115(18.3)	513(81.7)
	뒤 품	115(18.3)	513(81.7)
	가슴돌레	124(19.7)	504(80.3)
	허리돌레	183(29.1)	445(70.9)
	진동돌레	109(17.4)	519(82.6)
	블라우스 길이	132(21.0)	496(79.0)
	소 매 통	131(20.9)	497(79.1)
	소매길이	106(16.9)	522(83.1)
스 커 트	허리돌레	253(40.3)	375(59.7)
	배 돌 레	208(33.1)	420(66.9)
	영덩이돌레	325(51.8)	303(48.2)
	스커트길이	515(82.0)	113(18.0)
	밑단돌레	397(63.2)	231(36.8)
	주 름(n=508)	353(69.5)	155(30.5)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변형 정도를 살펴보면 <표 6>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치수를 줄이는 변형으로 줄이는 정도 또한 약간 줄임에서 매우 많이 줄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치수를 늘리는 변형율은 매우 극소수였으며 늘리는 정도의 분포도 블라우스에서는 약간 늘림과 많이 늘림, 스커트는 약간 늘림에 그쳤다. 여고생들의 교복 변형 경향을 보면 블라우스와 스커트 모든 부위의 품, 너비, 돌레 및 길이를 줄이고 스커트의 주름을 깊게 박거나 주름선을 길게 내려 전체적으로 짧고 타이트하게 입기 위해 교복 치수를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애(1998)의 교복 전체의 실루엣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인체선이 부각되는 실루엣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백승희(2000)의 교복 형태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짧고 허리가 들어간 실루엣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표 6>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변형 정도 n=628

변형 정도 변형 부위	매 우 많이 줄임 ←		고치지 않음			→ 매 우 많이 늘림	
	1	2	3	4	5	6	7
목둘레	5	4	30	587	1	1	·
어깨너비	8	29	143	445	2	1	·
앞 품	4	17	91	513	2	1	·
뒤 품	4	16	92	513	2	1	·
가슴둘레	3	14	103	504	3	1	·
허리둘레	4	28	146	445	4	1	·
진동둘레	4	14	88	519	1	2	·
블라우스길이	2	15	112	496	1	2	·
소매통	3	16	110	497	1	1	·
소매길이	2	9	92	522	2	1	·

<표 7>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변형 정도 n=628 (주름 제외)

변형 정도 변형 부위	매 우 많이 줄임 ←		고치지 않음			→ 매 우 많이 늘림	
	1	2	3	4	5	6	7
허리둘레	14	39	192	375	8	·	·
배둘레	9	32	163	420	4	·	·
영덩이둘레	13	49	258	303	5	·	·
스커트길이	19	95	381	113	18	2	·
밑단둘레	19	77	295	231	6	·	·
주름(n=508)	15	48	288	155	2	·	·

(※ 주름변형: 주름을 깊게 박거나 주름박음선 길이를 늘려 스커트 폭을 줄이는 변형으로 S고등학교는 스커트 디자인으로 인해 제외됨)

(2) 교복 변형 및 변형 안함의 이유와 견해

제주도 여고생들의 교복 변형의 이유, 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 및 변형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표 8>, <표 9>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복 치수 변형의 이유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치수가 맞지 않아서’가 3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서(25.2%)’, ‘자기 스타일이 아니므로(14.6%)’, ‘유행이므로(12.0%)’, ‘활동하는 데 불편해서(4.7%)’, ‘뜯어지거나 터져서(1.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2.9%)에는 ‘고쳐야 예쁘니까’,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학교규정에 맞지 않아서’, ‘안 고치면 흥해서’, ‘바람에 날려서’등의 이유가 있었다. 변형의 이유가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교복 변형 이유를 분류해서 조사한 결과 교복 변형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도 변형의 이유 순서가 같았다. 이에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치수가 맞지 않아서’가 교복을 변형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제주도 여고생들은 교복 치수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변형의 이유로 나타난 ‘유행(30.5%)’의 이유가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12.0%를 차지하여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교복 변형의 이유

복수응답

	유행 이므로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치수가 맞지않아서	활동하는데 불편해서	자기스타일 (개성) 아니므로	뜯어지거나 터져서	기 타	합 계
빈 도 (%)	126 (12.0)	265 (25.2)	408 (38.8)	49 (4.7)	153 (14.6)	19 (1.8)	31 (2.9)	*959- 1051 (100)

* 959(응답자)-1051(복수응답)

변형을 하지 않은 이유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규제 때문에’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번거로워서(28.3%)’, ‘치수가 잘 맞아서(12.2%)’, ‘활동에 불편할 것 같아서(5.6%)’, ‘신체성장을 고려해서(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4.1%)에서는 ‘비용이 들어서’, ‘변형할 필요가 없어서’, ‘외관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학생다운니까’ 등이 있었다. 이 결과 또한 변형하지 않는 이유가 교복 치수 변형 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9> 교복 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치수가 잘 맞아서	번거로워서	활동에 불편할 것 같아서	학교규제 때문에	신체성장을 고려해서	기 타	합 계
빈 도 (%)	103 (12.2)	239 (28.3)	47 (5.6)	378 (44.8)	42 (5.0)	35 (4.1)	*814-844 (100)

* 814(응답자)-844(복수응답)



교복 변형에 관한 견해는 <표 10>과 같이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몸에 맞게 고쳐 입을 수 있다(33.6%)’,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25.6%)’, ‘교복도 유행에 맞추어 고쳐 입을 수 있다(11.5%)’의 견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몸의 곡선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이므로 싫다(4.3%)’, ‘활동하기 불편할 것이므로 좋아하지 않는다(3.4%)’, ‘교복다움이 없어지므로 싫다(2.9%)’의 교복 변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는 12.0% 미만으로 나타나 교복 변형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이혜경, 2000)에서 교복 변형에 대한 의견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10> 교복 변형에 관한 견해

복수응답

교복 변형에 관한 견해		빈도(%)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몸에 맞게 고쳐서 입을 수 있다.	493(33.6)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	375(25.6)
	학교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복을 고치는 것은 괜찮다.	264(18)
	교복도 유행에 맞추어 고쳐 입을 수 있다.	168(11.5)
	몸의 곡선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이므로 싫다.	63(4.3)
	활동하기 불편할 것이므로 좋아하지 않는다.	50(3.4)
	교복다움이 없어지므로 싫다.	42(2.9)
	기 타	11(0.8)
	합 계	*975-1466(100)

*975(응답자)-1466(복수응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와 교복 각 부위별 변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연구문제 1-2>)는 <표 11>, <표 12>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경험유무의 차이는 <표 11>과 같이 실업계 학생이 73.5%, 인문계 학생이 60.2%가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수선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11> 학교 유형 따른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의 차이

변형 경험 학교 유형	있다 N(%)	없다 N(%)	전체 N(%)	χ^2
인문계	277(60.2)	183(39.8)	460(100)	19.937***
실업계	399(73.5)	144(26.5)	543(100)	

*** $p < .001$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는 <표 12>와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블라우스에서는 모든 부위 즉, 목둘레, 어깨너비, 앞품, 뒤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및 소매길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커트에서는 스커트 길이를 제외한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및 밑단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변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스커트보다 블라우스에서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스커트가 블라우스보다 전 부위에서 변형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우스에서 학교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인문계 학생들이 블라우스 변형율에 비해 스커트 변형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인문계 학생들이 특히 스커트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이 스커트에 대한 불만족 및 원인을 치수 만족/불만족과 교복만족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치수만족/불만족과 교복만족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의 각 부위별 변형율의 순위를 살펴보면 블라우스에서는 인문계 학생은 허리둘레 부위에서 변형율이 1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어깨너비(13.3%), 뒤품(12.9%), 블라우스 길이(12.5%), 가슴둘레(12.2%), 앞품(11.4%), 진동둘레·소매길이(6.8%), 소매통(6.1%), 목둘레(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학생들은 어깨너비 부위에서 40.5%로 가장 높은 변형율을 보이

<표 12> 학교 유형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학교 유형	변형 N(%)	변형 안함 N(%)	전 체 N(%)	χ^2
목둘레	인문계	6(2.3)	257(97.7)	263(100)	13.377***
	실업계	35(9.6)	330(90.4)	365(100)	
어깨너비	인문계	35(13.3)	228(86.7)	263(100)	54.930***
	실업계	148(40.5)	217(59.5)	365(100)	
앞폭	인문계	30(11.4)	233(88.6)	263(100)	14.424***
	실업계	85(23.3)	280(76.7)	365(100)	
뒤폭	인문계	34(12.9)	229(87.1)	263(100)	8.770**
	실업계	81(22.2)	284(77.8)	365(100)	
가슴둘레	인문계	32(12.2)	231(87.8)	263(100)	16.398***
	실업계	92(25.2)	273(74.8)	365(100)	
허리둘레	인문계	43(16.3)	220(83.7)	263(100)	35.850***
	실업계	140(38.4)	225(61.6)	365(100)	
진동둘레	인문계	18(6.8)	245(93.2)	263(100)	34.863***
	실업계	91(24.9)	274(75.1)	365(100)	
블라우스길이	인문계	33(12.5)	230(87.5)	263(100)	19.562***
	실업계	99(27.1)	266(72.9)	365(100)	
소매통	인문계	16(6.1)	247(93.9)	263(100)	59.847***
	실업계	115(31.5)	250(68.5)	365(100)	
소매길이	인문계	18(6.8)	245(93.2)	263(100)	32.478***
	실업계	88(24.1)	277(75.9)	365(100)	

** $p < .01$ *** $p < .001$

<표 13> 학교 유형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학교 유형	변형 N(%)	변형 안함 N(%)	전 체 N(%)	χ^2
허리둘레	인문계	92(35.0)	171(65.0)	263(100)	5.295*
	실업계	161(44.1)	204(55.9)	365(100)	
배둘레	인문계	73(27.8)	190(72.2)	263(100)	5.878*
	실업계	135(37.0)	230(63.0)	365(100)	
엉덩이둘레	인문계	121(46.0)	142(54.0)	263(100)	5.979*
	실업계	204(55.9)	161(44.1)	365(100)	
스커트길이	인문계	208(79.1)	55(20.9)	263(100)	2.872
	실업계	307(84.1)	58(15.9)	365(100)	
밑단둘레	인문계	152(58.0)	110(42.0)	252(100)	5.405*
	실업계	245(66.9)	121(33.1)	366(100)	
주 름	인문계	81(57.0)	61(43.0)	142(100)	14.399***
	실업계	272(74.3)	94(25.7)	366(100)	

* $p < .05$ *** $p < .001$

고 있으며 다음으로 변형율이 높은 부위로는 허리둘레(38.4%), 소매통 (31.5%), 블라우스길이(27.1%), 가슴둘레(25.2%), 진동둘레(24.9%), 소매길이(24.1%), 앞품 (23.3%), 뒤품(22.2%), 목둘레(9.6%) 부위 순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에서는 학교유형에 따라 변형율 순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품 및 길이를 줄이는 변형은 같았지만 실업계 학생들이 교복 변형 경험이 많았으며 인문계 학생들보다 전 부위에서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변형율은 블라우스에서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위별 변형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이 블라우스의 어깨너비 부위에서 변형율이 높은 반면 인문계 학생들은 허리둘레 부위에서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와 정도 및 부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와 교복의 각 부위별 변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연구문제 1-3>)는 <표 14>, <표 15>와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만 지각이 60.2%, 평균 지각이 69.3%, 마름 지각이 77.7%가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체형이 마르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비만/평균이라고 지각한 학생보다 변형율이 높았으며, 평균이라고 지각한 응답자는 비만이라고 지각한 응답자보다 변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형이 대체로 줄이는 변형이므로 체형이 마르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비만이라고 지각한 학생보다 변형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4>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의 차이

변형 경험 체형 지각	있다	없다	전체	χ^2
	N(%)	N(%)	N(%)	
비만 지각	160(60.2)	106(39.8)	266(100)	11.860**
평균 지각	413(69.3)	183(30.7)	596(100)	
마름 지각	73(77.7)	21(22.3)	94(100)	

** $p < .01$

교복 변형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는 <표 15>와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블라우스의 소매 길이와 스커트의 허리둘레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매길이에서는 평균 지각의 변형율이 가장 높았고 마름 지각이 변형율이 적은 반면 스커트 허리둘레에서는 마름 지각의 변형율이 가장 높았고 평균 지각의 변형율이 적었다.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 부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형율에 있어서는 비만 지각이 평균/마름 지각보다 앞뿔, 뒤편 및 가슴둘레 부위에서 변형율이 높았고, 평균 지각은 비만/마름 지각보다 목둘레, 어깨너비,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소매길이, 밑단둘레 및 주름부위에서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름 지각이 비만/평균 지각보다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및 스커트길이에서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다. 체형 지각별 블라우스 부위의 변형율 순위를 살펴보면 비만 지각은 어깨너비(25.7%)부위에서 가장 변형을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는 허리둘레(25.0%), 가슴둘레(20.4%), 소매통(19.7%), 뒤편·앞뿔(19.1%), 블라우스길이(17.8%), 진동둘레(17.1%), 소매길이(15.1%), 목둘레(5.9%)순으로 변형하였다. 평균 지각에서는 허리둘레(32.3%) 부위에서 가장 높은 변형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변형율의 높은 부위로는 어깨너비(31.5%), 소매통(24.1%), 블라우스길이(23.8%), 소매길이(20.4%), 진동둘레(19.0%), 앞뿔(18.8%), 뒤편(18.5%), 목둘레(7.4%) 순이었다. 마름 지각은 어깨너비(29.0%)에서 변형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허리둘레(24.6%), 가슴둘레(18.8%), 블라우스길이(15.9%), 뒤편(13.0%), 소매통·앞뿔(11.6%), 진동둘레(10.1%), 소매길이(5.8%), 목둘레(1.4%)순으로 변형을 하였다. 스커트 부위의 변형율 순위를 살펴보면 비만/평균 지각은 변형율 순위가 스커트길이(82.1/81.2%), 주름(69.6/71.1%), 밑단둘레(61.2/64.5%), 엉덩이둘레(49.3/52.9%), 허리둘레(37.5/39.2%), 배둘레(32.9/31.5%) 부위 순으로 나타났고 마름 지각은 스커트길이(87.0%), 밑단둘레(62.3%), 주름(58.2%), 허리둘레(56.5%), 엉덩이둘레(53.6%), 배둘레(42.0%) 순으로 나타나 변형율 순위가 체형지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5> 체형 지각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체형 지각	변형 N(%)	변형 안함 N(%)	전 체 N(%)	χ^2
목둘레	비 만	9(5.9)	143(94.1)	152(100)	3.548
	평 균	28(7.4)	350(92.6)	378(100)	
	마 립	1(1.4)	68(98.6)	69(100)	
어깨너비	비 만	39(25.7)	113(74.3)	152(100)	1.780
	평 균	119(31.5)	259(68.5)	378(100)	
	마 립	20(29.0)	49(71.0)	69(100)	
앞품	비 만	29(19.1)	123(80.9)	152(100)	2.192
	평 균	71(18.8)	307(81.2)	378(100)	
	마 립	8(11.6)	61(88.4)	69(100)	
뒤품	비 만	29(19.1)	123(80.9)	152(100)	1.335
	평 균	70(18.5)	308(81.5)	378(100)	
	마 립	9(13.0)	60(87.0)	69(100)	
가슴둘레	비 만	31(20.4)	121(79.6)	152(100)	.082
	평 균	74(19.6)	304(80.4)	378(100)	
	마 립	13(18.8)	56(81.2)	69(100)	
허리둘레	비 만	38(25.0)	114(75.0)	152(100)	3.660
	평 균	122(32.3)	256(67.7)	378(100)	
	마 립	17(24.6)	52(75.4)	69(100)	
진동둘레	비 만	26(17.1)	126(82.9)	152(100)	3.224
	평 균	72(19.0)	306(81.0)	378(100)	
	마 립	7(10.1)	62(89.9)	69(100)	
블라우스길이	비 만	27(17.8)	125(82.2)	152(100)	3.726
	평 균	90(23.8)	288(76.2)	378(100)	
	마 립	11(15.9)	58(84.1)	69(100)	
소매통	비 만	30(19.7)	122(80.3)	152(100)	5.768
	평 균	91(24.1)	287(75.9)	378(100)	
	마 립	8(11.6)	61(88.4)	69(100)	
소매길이	비 만	23(15.1)	129(84.9)	152(100)	9.343**
	평 균	77(20.4)	301(79.6)	378(100)	
	마 립	4(5.8)	65(94.2)	69(100)	

** $p < .01$

<표 16> 체형 지각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체형지각	변형 N(%)	변형 안함 N(%)	전 체 N(%)	χ^2
허리둘레	비 만	57(37.5)	95(62.5)	152(100)	8.174*
	평 균	148(39.2)	230(60.8)	378(100)	
	마 립	39(56.5)	30(43.5)	69(100)	
배둘레	비 만	50(32.9)	102(67.1)	152(100)	2.936
	평 균	119(31.5)	259(68.5)	378(100)	
	마 립	29(42.0)	40(58.0)	69(100)	
엉덩이둘레	비 만	75(49.3)	77(50.7)	152(100)	.627
	평 균	200(52.9)	178(47.1)	378(100)	
	마 립	37(53.6)	32(46.4)	69(100)	
스커트길이	비 만	124(82.1)	27(17.9)	151(100)	1.308
	평 균	307(81.2)	71(18.8)	378(100)	
	마 립	60(87.0)	9(13.0)	69(100)	
밑단둘레	비 만	93(61.2)	59(38.8)	152(100)	.537
	평 균	243(64.5)	134(35.5)	377(100)	
	마 립	43(62.3)	26(37.7)	69(100)	
주름박음선	비 만	78(69.6)	34(30.4)	112(100)	3.687
	평 균	224(71.1)	91(28.9)	315(100)	
	마 립	32(58.2)	23(41.8)	55(100)	

* $p < .05$

3. 치수 만족/불만족

본 연구의 제시된 <연구문제 2-1>, <연구문제 2-2>, <연구문제 2-3>, <연구문제 2-4>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었다.

1) 치수 만족/불만족의 실태조사

치수만족/불만족의 실태는 조사대상자의 신체치수, 교복 구입 시 치수선택 기준, 치수 만족/불만족 부위, 교복 치수의 불만점, 개선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연구문제 2-1>)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치수

치수만족/불만족을 살펴보기 전에 그들의 응답한 신체치수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응답한 각 부위 신체치수는 97년 국민 체위조사와 2000년 서울특별시 체격현황의 신체치수결과와 비교해볼 때 키가 약 1cm가량 크며 허리둘레를 제외한 몸무게 및 둘레항목의 치수가 적게 나타났다.

<표 17> 97년 국민 체위조사와 서울특별시 2000년 체격 현황과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신체치수 평균 비교

	97년 국민 체위조사 (만 15~17세)	서울특별시 2000년 체격 현황 (여고생)	본 연구 조사대상자 (여고생)
키(cm)	159.5	160.1	161
몸무게(kg)	52.4	56.2	52
가슴둘레(cm)	80.8	85.8	79.5
허리둘레(cm)	65.6	없음	65.8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의복을 착용할 때 그들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그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비교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의 맞음성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으며(이영주·임숙자, 2001) 이런 신체만족도는 실제체형보다 인지체형이 더욱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숙, 1990; 박우미, 1993; 구양숙·추태귀, 1996; 남윤자·이승희,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유형에 따른 체형 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비만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실업계 학생들이 평균과 마름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타이트하게 맞고, 몸매를 드러내는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박선영, 1998). 따라서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실업계 학생들이 교복 변형 및 치수 만족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겠다.

<표 18> 학교 유형에 따른 체형 지각의 차이

체형 지각 학교 유형	비만 지각 N(%)	평균 지각 N(%)	마름 지각 N(%)	합 계 N(%)	χ^2
인문계	146(33.1)	255(57.8)	40(9.1)	441(100)	11.387 **
실업계	121(23.3)	344(66.3)	54(10.4)	519(100)	

** $p < .01$

(2) 치수선택 기준

교복 구입 시 치수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부위는 <표 19>와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블라우스의 1순위는 어깨너비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부위의 치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순위는 가슴둘레(27.3%), 3순위는 허리둘레(24.4%), 4순위는 블라우스길이(23.0%), 5순위는 소매길이(32.9%), 6순위는 목둘레(46.0%)로 나타났다. 스커트의 1순위는 허리둘레가 53.4%로 이 부위의 치수를 가장 중요시하는 하고 있으며 2순위는 스커트길이(28.9%), 3순위는 엉덩이둘레(31.7%), 4순위는 배둘레(31.9%), 5순위는 밑단둘레(62.6)로 나타났다.

<표 19> 블라우스 구입 시 치수선택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부위

	순 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블 라 우 스	1	어깨너비 (38.2%)	가슴둘레 (27.3%)	허리둘레 (24.4%)	블라우스 길이 (23.0%)	소매길이 (32.9%)	목둘레 (46.0%)
	2	블라우스 길이 (21.9%)	어깨너비 (25.4%)	가슴둘레 (19.4%)	허리둘레 (20.4%)	목둘레 (20.2%)	소매길이 (30.2%)
	3	가슴둘레 (20.1%)	허리둘레 (17.5%)	어깨너비 (18.6%)	소매길이 (15.7%)	블라우스 길이 (15.7%)	허리둘레 (10.0%)
	4	허리둘레 (13.4%)	블라우스 길이 (16.5%)	블라우스 길이 (18.1%)	가슴둘레 (15.2%)	허리둘레 (13.1%)	블라우스 길이 (6.3%)
	5	목둘레 (3.6%)	소매길이 (8.6%)	목둘레 (9.9%)	목둘레 (14.8%)	가슴둘레 (12.1%)	가슴둘레 (5.6%)
	6	소매길이 (1.9%)	목둘레 (4.8%)	소매길이 (9.7%)	어깨너비 (10.9%)	어깨너비 (6.0%)	어깨너비 (1.8%)
전 체		942(100%)	942(100%)	940(100%)	939(100%)	939(100%)	939(100%)

<표 20> 스커트 구입 시 치수선택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부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스 커 트	1	허리둘레 (53.4%)	스커트길이 (28.9%)	영덩이둘레 (31.7%)	배둘레 (31.9%)	밑단둘레 (62.6%)
	2	스커트길이 (26.1%)	영덩이둘레 (25.7%)	배둘레 (26.1%)	스커트길이 (24.6%)	배둘레 (22.2%)
	3	영덩이둘레 (15.4%)	허리둘레 (22.4%)	스커트길이 (16.4%)	영덩이둘레 (19.7%)	영덩이둘레 (7.4%)
	4	배둘레 (3.1%)	배둘레 (16.6%)	허리둘레 (14.4%)	밑단둘레 (17.1%)	스커트길이 (4.0%)
	5	밑단둘레 (2.0%)	밑단둘레 (6.4%)	밑단둘레 (11.4%)	허리둘레 (6.5%)	허리둘레 (3.6%)
전 체		943(100%)	942(100%)	940(100%)	940(100%)	940(100%)

(3) 치수 만족/불만족 부위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은 <표 21>과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블라우스는 불만족보다 만족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커트는 만족과 불만족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불만족에서는 치수가 작음의 불만족 보다 큼의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만족율은 스커트가 블라우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라우스에서 치수가 커서 불만족한 부위로는 허리둘레(32.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목둘레(30.5%), 앞품(26.2%), 어깨너비(25.9%), 가슴둘레(24.4%), 뒤품(23.7%), 블라우스길이(21.4%), 진동둘레(18.6%), 소매통(17.3%), 소매길이(16.4%) 순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 부위 중 치수가 작아서 불만족한 부위로는 블라우스길이(17.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소매통

(16.2%), 가슴둘레(12.5%), 진동둘레(11.7%), 앞품(11.5%), 뒤품(11.3%), 어깨너비(10.9%), 소매길이(9.5%), 허리둘레(5.9%), 목둘레(2.1%) 순으로 나타났다. 치수가 만족스러운 부위로는 소매길이(74.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진동둘레(69.7%), 목둘레(67.4%), 소매통(66.6%), 뒤품(65.0%), 어깨너비(63.2%), 가슴둘레(63.1%), 앞품(62.3%), 허리둘레(61.7%), 블라우스길이(61.5%) 순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부위중 치수가 커서 불만족한 부위는 밑단둘레(39.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허리둘레(36.8%), 스커트길이(35.9%), 엉덩이둘레(32.6%), 배둘레(31.0%) 순으로 나타났다. 치수가 작아서 불만족한 부위로는 배둘레(11.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커트길이(10.4), 허리둘레(10.1%), 엉덩이둘레(9.1%), 밑단둘레(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수가 만족스러운 부위는 엉덩이둘레(58.3%), 배둘레(57.5%), 밑단둘레(54.5%), 스커트길이(53.7%), 허리둘레(53.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교복 치수에 대해 불만족 부위의 순위가 만족 부위의 순위보다 앞에 언급한 치수선택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부위를 상위에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즉, 치수 불만족에서 높은 순위로 나타난 부위는 치수선택 시 중요시하는 부위에 해당되며 치수 만족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낸 부위는 치수선택 시 덜 중요시하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치수선택 시 중요시하는 부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치수 만족/불만족이 치수선택 시 기준이 되는 부위에 영향을 받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복 치수에 있어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 부위는 변형율이 높은 부위와 일치하고 있었다. 즉, 블라우스의 허리둘레, 블라우스길이, 어깨너비와 스커트의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부위는 변형율이 높은 부위임과 동시에 치수 불만족율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변형율과 치수 불만족율이 높은 이 부위에 대한 치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치수 만족/불만족의 결과는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집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은 뒤에서 제시하였다(<표 27>, <표 28> 참조).

<표 21>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

치수 만족/ 불만족 부 위	불만족		만족	합계
	큼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목둘레	304(30.5)	21(2.1)	673(67.4)	998(100)
어깨너비	258(25.9)	109(10.9)	631(63.2)	998(100)
앞폭	261(26.2)	115(11.5)	621(62.3)	997(100)
뒤폭	236(23.7)	113(11.3)	648(65.0)	997(100)
가슴둘레	244(24.4)	125(12.5)	630(63.1)	999(100)
허리둘레	323(32.4)	59(5.9)	615(61.7)	997(100)
진동둘레	185(18.6)	116(11.7)	694(69.7)	995(100)
블라우스길이	213(21.4)	170(17.1)	613(61.5)	996(100)
소매통	172(17.3)	161(16.2)	663(66.6)	996(100)
소매길이	164(16.4)	95(9.5)	739(74.0)	998(100)

<표 22>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

치수 만족/ 불만족 부 위	불만족		만족	합계
	큼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허리둘레	368(36.8)	101(10.1)	532(53.1)	1001(100)
배둘레	310(31.0)	115(11.5)	576(57.5)	1001(100)
엉덩이둘레	326(32.6)	91(9.1)	583(58.3)	1000(100)
스커트길이	359(35.9)	104(10.4)	538(53.7)	1001(100)
밑단둘레	399(39.9)	56(5.6)	546(54.5)	1001(100)

(4) 교복 치수의 불만점과 개선 및 요구사항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점과 개선 및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0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 ‘스커트 폭이 커서 활동이 불편하다(33.8%)’의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교복 치수가 전체적으로 크다(17.1%)’, ‘체형에 맞지 않고 사이즈도 없으며 또한 업체별로 치수가 틀리다(16.7%)’, ‘스커트길이가 길다(5.7%)’, ‘어깨너비가 크다(4.8%)’, 와 같은 의견과 함께 ‘팔을 들어올릴 때 상의가 올라가고 소매가 불편하다(7.6%)’, ‘치수가 작다(1.7%)’의 의견도 나왔다. 그 외에 ‘앞여밈이 벌어지다’, ‘주름이 벌어져 불편하다’, ‘목둘레 크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개선 및 요구사항에는 스커트 폭 및 학생취향에 맞는 교복 치수 개선의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교복의 치수체계의 세분화, 다양화, 통일화의 의견도 많았다. 활동 불편성으로 스커트와 바지를 병행해서 입게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는 2000년 3월 19일 치마 일색인 여학생 교복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치마와 바지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 권장하기로 함에 따라(동아일보, 2000.03.19) 바지와 병행해서 착용하는 학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조진숙, 1990; 김윤희, 1991; 백승희, 2000)에서 학생들은 바지착용을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치마와 바지를 상황에 따라 골라 입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스커트가 변형율이 높음과 동시에 큼의 불만족율도 높게 나타났고, 스커트와 바지를 병행해서 입게 해달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지 착용 병행을 고려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 학교 유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학교 유형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연구문제 2-2>)는 <표 23>과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블라우스에서는 목둘레, 앞품, 뒤품, 가슴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및 소매길이 부위에서, 스커트에서는 밑단둘레를 제외한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및 스커트길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복 각 부위 치수에 대해서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만족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수에 대한 불만족에서는 블라우스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큼의 불만족율이 높은 반면 스커트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높았다. 작음의 불만족율은 블라우스와 스커트 모두 인문계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을 구체적인 부위로 살펴보면 교복 각 부위 치수에 대한 만족은 소매길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실업계 학생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실업계 학생들의 높은 변형율이 치수 만족/불만족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큼의 불만족율이 높은 부위로는 블라우스의 어깨너비, 앞품, 뒤품, 가슴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소매길이를 나타냈으며,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큼의 불만족율이 높은 부위는 블라우스의 목둘레, 허리둘레로 나타났으며 스커트에서는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작음의 불만족율은 블라우스와 스커트 모든 부위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교복 치수에 대한 만족과 작음의 불만족은 학교 유형에 따라 블라우스와 스커트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큼의 불만족은 블라우스의 경우 실업계 학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스커트의 경우 인문계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박영애(1998)의 연구에서 플레어 스커트가 넓음으로 인해서 걸어다닐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혜경(2000)연구에서 블라우스는 디자인에 따른 변형의 차이가 없었으나 스커트는 디자인(주름이나 실루엣)에 따른 교복 변형의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할 때 인문계 학생이 스커트에서 큼의 불만족율이 높음을 디자인의 영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디자인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을 살펴보았다(<부록 7-7> 참조). 그 결과 디자인이 플레어 스커트인 S고등학교가 다른 학교 보다 스커트의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및 밑단둘레 부위에서 큼의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이 스커트에서 큼의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1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교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과 관련하여 교복 변형과 교복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결과는 <부록 7>에 제시되었다.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치수의 만족/불만족 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라우스에서 큼의 불만족율이 높은 부위는 인문계 학생이 목둘레(34.4%), 허리둘레(33.5%), 어깨너비(2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학생은 허리둘레(31.5%), 앞품(27.6%), 목둘레(27.1%) 순이었다. 작음의 불만족율 순위는 인문계 학생이 블라우스길이(23.7%), 소매통(20.6%), 가슴둘레(17.2%) 순이었고 실업계 학생은 소매통(12.4%), 블라우스길이(11.5%), 어깨너비(9.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율의 순위는 인문계 학생이 소매길이(74.2%), 진동둘레(65.4%), 소매통(65.2%) 순이었고, 실업계 학생은 소매길이(73.9%), 진동둘레(73.5%), 목둘레(70.9%) 순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에서 큼의 불만족율이 높은 부위는 인문계 학생이 밑단둘레(43.3%), 스커트길이(40.7%), 허리둘레(39.8%) 순이었고, 실업계 학생은 밑단둘레(37.0%), 허리둘레(34.2%), 스커트길이(31.8%) 순으로 나타났다. 작음의 불만족위 순위는 인문계 학생이 배둘레(14.8%), 허리둘레(14.1%), 엉덩이둘레(12.6%) 순이며, 실업계 학생은 스커트길이(10.0%), 배둘레(8.7%), 허리둘레(6.7%)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 부위의 순위로는 인문계 학생이 배둘레(53.9%), 엉덩이둘레(51.1%), 밑단둘레(51.0%) 순이었고, 실업계 학생은 엉덩이둘레(64.4%), 배둘레(60.6%), 허리둘레(5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학교 유형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학 교 유 형	불만족		만 족 N(%)	전 체 N(%)	χ^2
		큰의 불만족	작은의 불만족			
		N(%)	N(%)			
목둘레	인문계	158(34.4)	10(2.2)	291(63.4)	459(100)	6.455*
	실업계	146(27.1)	11(2.0)	382(70.9)	539(100)	
어깨너비	인문계	116(25.3)	59(12.9)	283(61.8)	458(100)	3.344
	실업계	142(26.3)	50(9.3)	348(64.4)	540(100)	
앞폭	인문계	112(24.5)	72(15.8)	273(59.7)	457(100)	14.809**
	실업계	149(27.6)	43(8.0)	348(64.4)	540(100)	
뒤폭	인문계	108(23.6)	65(14.2)	284(62.1)	457(100)	7.270*
	실업계	128(23.7)	48(8.9)	364(67.4)	540(100)	
가슴둘레	인문계	110(24.0)	79(17.2)	270(58.8)	459(100)	17.477***
	실업계	134(24.8)	46(8.5)	360(66.7)	540(100)	
허리둘레	인문계	153(33.5)	30(6.6)	274(60.0)	457(100)	1.310
	실업계	170(31.5)	29(5.4)	341(63.1)	540(100)	
진동둘레	인문계	83(18.2)	75(16.4)	298(65.4)	456(100)	18.964***
	실업계	102(18.9)	41(7.6)	396(73.5)	539(100)	
블라우스 길이	인문계	90(19.7)	108(23.7)	258(56.6)	456(100)	26.010***
	실업계	123(22.8)	62(11.5)	355(65.7)	540(100)	
소매통	인문계	65(14.2)	94(20.6)	298(65.2)	457(100)	14.905**
	실업계	107(19.9)	67(12.4)	365(67.7)	539(100)	
소매길이	인문계	61(13.3)	57(12.4)	340(74.2)	458(100)	12.614**
	실업계	103(19.1)	38(7.0)	399(73.9)	540(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24> 학교 유형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학 교 유 형	불 만 족		만 족	전 체	x ²
		큼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허리둘레	인문계	183(39.8)	65(14.1)	212(46.1)	460(100)	23.864***
	실업계	185(34.2)	36(6.7)	320(59.1)	541(100)	
배둘레	인문계	144(31.3)	68(14.8)	248(53.9)	460(100)	10.018**
	실업계	166(30.7)	47(8.7)	328(60.6)	541(100)	
영덩이 둘레	인문계	167(36.3)	58(12.6)	235(51.1)	460(100)	22.712***
	실업계	159(29.4)	33(6.1)	348(64.4)	540(100)	
스커트 길이	인문계	187(40.7)	50(10.9)	223(48.5)	460(100)	10.024**
	실업계	172(31.8)	54(10.0)	315(58.2)	541(100)	
밑단둘레	인문계	199(43.3)	26(5.7)	235(51.0)	460(100)	4.341
	실업계	200(37.0)	30(5.5)	311(57.5)	541(100)	

** $p < .01$ *** $p < .001$

4) 체형 지각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연구문제 2-3>), <표 25>와 <표 26>과 같이 블라우스의 목둘레, 앞폭,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및 소매통 부위와 스커트의 허리둘레와 배둘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에 대해서 평균과 마름 지각은 만족율이 높았으며, 비만 지각이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에서

는 마름 지각이 큼의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비만 지각은 평균/마름 지각 보다 작음의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Frederick(1977)의 연구에서는 신체와 의복 맞음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체중 집단이 가장 자신의 신체와 의복이 맞음성에 만족하였으며 체중조절을 하는 과체중 집단이 의복의 맞음성에 대해서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임숙자(2001)의 연구에서 마른 체형이 현대사회의 '표준' 체형인 마른 체형에 기준을 둔 의복을 착용했을 때 좀더 자신이 신체부위에 의복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반면, 자신의 사회적인 '표준' 체형보다 뚱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의복에 대한 불만족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비만 지각의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표준 체형에 기준을 둔 의류기성산업의 사이즈 체계가 좀더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라우스 치수의 불만족 중 큼의 불만족 부위의 순위를 살펴보면 비만 지각은 목둘레(36.1%), 어깨너비(31.6%), 허리둘레(29.3%)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각은 허리둘레(33.4%), 목둘레(27.4.3%), 앞폭(25.5%) 순으로, 마름 지각은 허리둘레(38.3%), 목둘레(34.4%), 앞폭(28.7%) 순으로 나타났다. 작음의 불만족부위의 순위로 비만 지각은 소매통(22.1%), 가슴둘레(20.7%), 블라우스길이(19.7%)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각은 블라우스길이(16.4%), 소매통(14.5%), 뒤폭(11.3%) 순이고, 마름 지각은 블라우스길이(16.0%), 뒤폭·진동둘레·소매길이(9.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 부위의 순위는 비만 지각이 소매길이(70.6%), 진동둘레(65.0%), 소매통(62.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각은 소매길이(74.7%), 진동둘레(71.3%), 목둘레(70.9%) 순이고, 마름 지각은 소매길이(74.5%), 진동둘레(70.2%), 어깨너비·소매통(68.1%) 순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치수의 불만족 중 큼의 불만족부위의 순위를 살펴보면 비만 지각은 밑단둘레(41.6%), 허리둘레(38.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각은 밑단둘레(29.3%), 스커트길이(36.3%) 순으로, 마름 지각은 밑단둘레(41.5%), 허리둘레(39.4%) 순으로 나타났다. 작음의 불만족 부위의 순위로는 비만 지각이 배둘레(19.1%), 허리둘레(16.5%) 순으로 나타났으며

<표 25> 체형 지각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체형 지각	불만족		만족	전체	x ²
		크기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목둘레	비만	96(36.1)	10(3.8)	160(60.2)	266(100)	12.558*
	평균	162(27.4)	10(1.7)	420(70.9)	592(100)	
	마름	32(34.4)	1(1.1)	60(64.5)	93(100)	
어깨너비	비만	84(31.6)	33(12.4)	149(56.0)	266(100)	9.253
	평균	139(23.5)	65(11.0)	387(65.5)	591(100)	
	마름	23(24.5)	7(7.4)	64(68.1)	94(100)	
앞품	비만	74(27.9)	41(15.5)	150(56.6)	265(100)	10.690*
	평균	151(25.5)	64(10.8)	377(63.7)	592(100)	
	마름	27(28.7)	4(4.3)	63(67.0)	94(100)	
뒤품	비만	67(25.3)	33(12.5)	165(62.3)	265(100)	1.916
	평균	134(22.6)	66(11.1)	392(66.2)	592(100)	
	마름	25(26.6)	9(9.6)	60(63.8)	94(100)	
가슴둘레	비만	64(24.1)	55(20.7)	147(55.3)	266(100)	25.632***
	평균	150(25.3)	60(10.1)	382(64.5)	592(100)	
	마름	24(25.5)	4(4.3)	66(70.2)	94(100)	
허리둘레	비만	78(29.3)	27(10.2)	161(60.5)	266(100)	14.920**
	평균	197(33.4)	26(4.4)	367(62.2)	590(100)	
	마름	36(38.3)	2(2.1)	56(59.6)	94(100)	
진동둘레	비만	45(16.9)	48(18.0)	173(65.0)	266(100)	14.555**
	평균	115(19.5)	54(9.2)	420(71.3)	589(100)	
	마름	19(20.2)	9(9.6)	66(70.2)	94(100)	
블라우스 길이	비만	57(21.6)	52(19.7)	155(58.7)	264(100)	2.998
	평균	130(22.0)	97(16.4)	365(61.7)	592(100)	
	마름	16(17.0)	15(16.0)	63(67.0)	94(100)	
소매통	비만	41(15.6)	58(22.1)	164(62.4)	263(100)	13.404**
	평균	104(17.6)	86(14.5)	402(67.9)	592(100)	
	마름	22(23.4)	8(8.5)	64(68.1)	94(100)	
소매길이	비만	43(16.2)	35(13.2)	187(70.6)	265(100)	5.099
	평균	101(17.1)	49(8.3)	442(74.7)	592(100)	
	마름	15(16.0)	9(9.6)	70(74.5)	94(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26> 체형 지각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체형 지각	불만족		만족	전체	χ^2
		크기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허리둘레	비만	102(38.2)	44(16.5)	121(45.3)	267(100)	19.559**
	평균	210(35.4)	45(7.6)	338(57.0)	593(100)	
	마름	37(39.4)	10(10.6)	47(50.0)	94(100)	
배둘레	비만	79(29.6)	51(19.1)	137(51.3)	267(100)	19.949**
	평균	185(31.2)	54(9.1)	354(59.7)	593(100)	
	마름	31(33.0)	7(7.4)	56(59.6)	94(100)	
엉덩이 둘레	비만	92(34.5)	32(12.0)	143(53.6)	267(100)	3.989
	평균	194(32.8)	50(8.4)	348(58.8)	592(100)	
	마름	31(33.0)	7(7.4)	56(59.6)	94(100)	
스커트 길이	비만	94(35.2)	33(12.4)	140(52.4)	267(100)	2.036
	평균	215(36.3)	55(9.3)	323(54.5)	593(100)	
	마름	32(34.0)	10(10.6)	52(55.3)	94(100)	
밑단둘레	비만	111(41.6)	17(6.4)	139(52.1)	267(100)	2.359
	평균	233(39.3)	29(4.9)	331(55.8)	593(100)	
	마름	39(41.5)	7(7.4)	48(51.1)	94(100)	

** $p < .01$

평균 지각은 스커트길이(9.3%), 배둘레(9.1%) 순이었고, 마름 지각은 허리둘레·스커트길이(10.6)로 나타났다. 만족부위의 순위는 비만 지각이 엉덩이둘레(53.6%), 스커트길이(52.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각은 배둘레(59.7%), 엉덩이둘레(58.8%) 순이었고, 마름 지각은 배둘레/엉덩이둘레(59.6%), 스커트길이(55.3%) 순으로 나타났다.

4)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연구문제 2-4>), <표 27>과 <표 28>에 제시된 같이 블라우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스커트의 허리둘레와 스커트길이 및 밑단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복 변형경험에 따른 블라우스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대한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변형율이 높은 스커트에서는 전체적으로 교복 변형 경험이 있는 집단이 변형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전 부위에서 치수에 대한 만족율이 높았다. 불만족에는 변형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작음의 불만족율이 높았으며, 반면 변형 경험이 없는 집단은 큼의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면 변형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교복 치수에 대하여 만족하고 반면 교복을 변형하지 않고 착용하면 치수가 커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치수에 대한 불만족은 변형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큼의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나 교복 치수에 대해서 변형 경험이 있어도 여전히 큼의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연구에서 강서지역 학생들이 교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교복 변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대조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강서지역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교복에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교복을 통학복 이외의 일상복 또는 외출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교복을 자신의 체형에 잘 맞고 현재의 유행스타일인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변형하여 교복을 이쁘게 입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이를 역으로 교복 변형을 많이 할수록 교복 치수 및 디자인의 만족율이 높아져서 교복의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되어진다.

<표 27>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변형 경험	불만족		만족	전체	x ²
		크기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목둘레	있다	193(28.8)	13(1.9)	463(69.2)	669(100)	2.944
	없다	110(33.7)	8(2.5)	208(63.8)	326(100)	
어깨너비	있다	182(27.2)	66(9.9)	421(62.9)	669(100)	3.146
	없다	76(23.3)	42(12.9)	208(63.8)	326(100)	
앞폭	있다	176(26.3)	74(11.1)	419(62.6)	669(100)	.195
	없다	84(25.8)	39(12.0)	202(62.2)	325(100)	
뒤폭	있다	163(24.4)	72(10.8)	434(64.9)	669(100)	.802
	없다	73(22.5)	40(12.3)	212(65.2)	325(100)	
가슴둘레	있다	153(22.8)	92(13.7)	425(63.4)	670(100)	4.369
	없다	90(27.6)	33(10.1)	203(62.3)	326(100)	
허리둘레	있다	209(31.2)	39(5.8)	421(62.9)	669(100)	1.406
	없다	113(34.8)	20(6.2)	192(59.1)	325(100)	
진동둘레	있다	121(18.1)	73(10.9)	473(70.9)	667(100)	1.410
	없다	64(19.7)	42(12.9)	219(67.4)	325(100)	
블라우스 길이	있다	152(22.7)	112(16.7)	405(60.5)	669(100)	1.964
	없다	61(18.8)	57(17.6)	206(63.6)	324(100)	
소매통	있다	122(18.3)	104(15.6)	442(66.2)	668(100)	1.740
	없다	49(15.1)	56(17.2)	220(67.7)	325(100)	
소매길이	있다	119(17.8)	66(9.9)	485(72.4)	670(100)	2.926
	없다	45(13.8)	29(8.9)	251(77.2)	325(100)	

<표 28>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변형 경험	불만족		만족	전체	χ ²
		크기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허리둘레	있다	220(32.7)	78(11.6)	374(55.7)	672(100)	16.121***
	없다	147(45.1)	23(7.1)	156(47.9)	326(100)	
배둘레	있다	197(29.3)	78(11.6)	397(59.1)	672(100)	2.626
	없다	112(34.4)	36(11.0)	178(54.6)	326(100)	
엉덩이 둘레	있다	204(30.4)	68(10.1)	399(59.5)	671(100)	5.810
	없다	121(37.1)	23(7.1)	182(55.8)	326(100)	
스커트 길이	있다	211(31.4)	86(12.8)	375(55.8)	672(100)	24.964***
	없다	148(45.4)	18(5.5)	160(49.1)	326(100)	
밑단둘레	있다	244(36.3)	46(6.8)	382(56.8)	672(100)	14.218**
	없다	154(47.2)	10(3.1)	162(49.7)	326(100)	

** $p < .01$ *** $p < .001$

3. 교복만족도

본 연구의 제시된 <연구문제 3-1>, <연구문제 3-2>, <연구문제 3-3>, <연구문제 3-4>와 <연구문제 3-5>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었다.

1) 교복만족도 평가차원

본 연구의 <연구문제 3-1> 규명하기 위해 교복만족도 차원들을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Varimax 회전법, 고유값 1.00이상)에 의하여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 1은 교복의 디자인, 색상, 비례 및 유행과 관련한 만족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요인 2는 교복이 학생의 신분표현, 소속감, 학교의 자부심과 긍지를 주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분 상징적 만족도’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팔을 들거나 재깍 때 불편함을 느끼는지 묻는 문항으로 ‘상의 활동 불만족도’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71로 나타났다. 요인 4는 교복의 세탁 후 형태변형, 보풀, 손질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 불만족도’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60으로 나타났다. 요인 5는 계단을 오를 때나 바람에 의해 스커트가 날려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하의 활동 불만족도’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60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총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54.4%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각 요인의 명칭과 문항의 내용은 <표 29>와 같다. 요인 분석 시 여러 요인에 대해 비슷한 요인 부하량을 갖거나 다른 요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인 부하량을 갖는 8문항은 제외하였다.

<표 29> 교복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교복만족도 문항 및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 1: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 우리 학교 교복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859	.180	.015	-.017	-.082
·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하여 만족한다.	.803	.186	-.045	-.052	-.087
· 교복 색상이 마음에 든다	.777	.203	-.047	-.109	-.056
· 디자인이 유행에 뒤지고 청소년의 감각에 맞지 않는다.	.697	.120	-.078	-.212	-.159
· 우리학교 교복은 상·하 비례가 맞는다	.546	.174	-.033	-.081	-.036
· 우리학교 교복은 나에게 어울린다.	.530	.326	-.090	-.126	-.145
·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468	.224	-.408	.018	.160
요인 2: 신분 상징적 만족도					
· 교복은 소속감이 생기고 급우들과 어울리기에 더 편하다.	.174	.739	-.023	-.024	-.138
· 교복을 입으면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088	.724	.071	-.012	-.102
· 교복을 입으면 집단 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게 된다.	.230	.648	-.002	-.017	.009
·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153	.645	-.157	-.034	.084
·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402	.633	-.043	-.062	.025
· 학생신분에 알맞고 단정해 보인다.	.340	.591	-.098	-.191	-.001
· 옷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144	.567	-.290	.044	-.008
· 아침마다 옷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041	.560	.029	-.261	-.005
요인 3: 상의 활동 불만족도					
·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 불편하다.	-.065	-.040	.801	.072	.123
· 몸을 뒤로 재질 때 불편하다.	-.045	-.002	.758	.158	.215
·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불편하다.	-.051	-.146	.622	.085	.330
요인 4: 관리 불만족도					
· 보풀이 잘 생긴다.	-.123	-.036	.055	.775	.070
· 여러번 세탁하면 교복 모양이 변한다.	-.119	-.028	.123	.770	.003
· 세탁과 손질이 쉽다.	-.107	-.184	.074	.586	.089
요인 5: 하의 활동 불만족도					
· 계단을 올라갈 때 불편함을 느낀다.	-.019	.006	.204	.136	.711
· 스커트가 바람에 날려 불편하다.	-.289	-.005	.043	-.026	.710
· 하의가 스커트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041	-.067	.227	.051	.650
고유치	6.344	2.413	1.776	1.436	1.085
회전된 각 요인의 설명분산	3.821	3.664	2.033	1.792	1.744
회전된 각 요인의 설명분산 비율(%)	15.922	15.266	8.473	7.465	7.266
Cronbach's α	.8475	.8303	.7092	.6000	.5917

교복만족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은 <표 3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의활동 불만족도 요인, 신분 상징적 만족도 요인, 상의활동 불만족도 요인, 관리 불만족도 요인,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요인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제주도 여고생들이 교복 착용 시 스커트가 활동에 불편함을 주어 교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 지역적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어서 스커트가 다리에 감기거나 올라가는 등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 30> 교복만족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값

교복만족도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2.66E-16 (1.0)
신분 상징적 만족도	5.58E-17 (1.0)
상의 활동 불만족도	1.14E-16 (1.0)
관리 불만족도	1.56E-16 (1.0)
하의 활동 불만족도	5.40E-17 (1.0)

2)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교복만족도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연구문제 3-2>)는 <표 31>과 같다. 교복만족도의 변인 중에서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를 제외한 신분 상징적 만족도, 상의 활동 불만족도, 관리 불만족도, 하의 활동 불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 여학생이 실업계 여학생보다 교복의 신분 상징적 만족도와 상·하의 활동 불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실업계 학생들이 관리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집단 규칙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등 학생신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행 및 심미적인 측면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 교복의 외관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1998)는 계열에 따른 교복 착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교복 디자인이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학교 유형 교복만족도	인문계 (n=426) M (S.D.)	실업계 (n=506) M (S.D.)	t값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034 (1.140)	
신분 상징적 만족도	.279 (.976)	-.235 (.960)	8.067***
상의 활동 불만족도	.101 (1.022)	-.085 (.974)	2.827**
관리 불만족도	-.099 (.923)	.083 (1.054)	-2.775**
하의 활동 불만족도	.135 (.949)	-.113 (1.029)	3.795***

** $p < .01$ *** $p < .001$

3)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검증을 실시한 결과(<연구문제 3-3>),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와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체형이 비만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이 평균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보다 상의와 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의 의복의 치수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이영주·임숙자, 2001) 의류산업체에서도 우선적으로 의복 제작시 표준 신체에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표준’이 되는 체형이 의복을 가장 잘 선택할 수 있게 된다(박선영, 1998). 이런 표준체형에 맞춰진 치수는 비만 체형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이 교복 착용 시 상·하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표 32>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체형 지각 \ 교복만족도	비만 지각 (n=240)	평균 지각 (n=558)	마름 지각 (n=91)	F 값
	M(S.D.)	M(S.D.)	M(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013(1.053)	.031(.968)	-.078(1.058)	.536
신분상징적 만족도	.016(1.058)	.002 (.992)	-.056(.953)	.172
상의활동 불만족도	.197(.980) a	-.064(1.004) b	-.052(1.023) ab	5.906**
관 리 불만족도	.062 (1.046)	-.011(.980)	.019 (1.045)	.443
하의활동 불만족도	.147 (1.008) a	-.047 (1.002) b	-.126(.942) ab	3.936*

* $p < .05$ ** $p < .01$

4)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연구문제 3-4>),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분 상징적 만족도와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신분 상징적 만족도는 높지만 하의 활동에 있어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의 활동에 있어 불만족을 느끼지만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이 학생신분 및 집단 규칙에서 어긋나는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교복 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 규제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표 9> 참조). 그러나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변형태도는 교복만족도 하위 요인 중 품위 및 안락감과 관계가 있으며 교복 변형 경험이 있는 학생이 품위 및 안락감이 높게 나타나 교복 변형을 함으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3>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변형 경험 교복만족도	있 다 (n=623)	없 다 (n=305)	t값
	M(S.D.)	M(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0.016(1.024)	0.027(.952)	-622
신분 상징적 만족도	-0.083(1.007)	.176(.968)	-3.733***
상의활동 불만족도	0.030(1.028)	-0.056(.929)	1.230
관리 불만족도	-0.011(1.052)	0.093(.882)	-.285
하의활동 불만족도	-0.064(1.023)	.126(.943)	-2.722**

** $p < .01$ *** $p < .001$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유행관심이 높을수록 교복을 많이 변형해서 착용하며(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 유행의 관심이 적은 학생일수록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유행성에 대해서 만족하고, 유행에 관심이 적고 의복을 착용했을 때 단정함이나 어울림 등의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교복의 신분 상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이상희·김현식·손원교, 1997). 본 연구에서도 교복 변형 경험이 없는 학생이 변형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복 변형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유행 및 심미적 측면에서 덜 관심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학교유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고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표 31>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과적인 관심으로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와 더불어 학교 유형과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라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4>와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와 신분 상징적 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복 제작 시 유행성은 학교규칙 내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유행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와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행의 관심이 낮을수록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유행성에 만족한다는 선행연구(이상희·김현식·손원교, 1997)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4>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 교복만족도	반영해야 한다 (n=495)	무시해야 한다 (n=26)	학교 규칙내 반영 (n=443)	F값
	M (S.D.)	M (S.D.)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126 (1.008) b	-.010 (.912) ab	.144 (.993) a	5.261**
신분 상징적 만족도	-.167 (1.024) b	-.114 (1.337) ab	.200 (.921) a	10.371***
상의 활동 불만족도	.011 (1.011)	.127 (.942)	-.024 (1.008)	.428
관리 불만족도	.022 (1.075)	.039 (1.155)	-.050 (.883)	3.073
하의 활동 불만족도	-.042 (1.033)	-.119 (1.168)	.090 (.923)	1.498

** $p < .01$ *** $p < .001$

학교 유형과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인문계 학생과 교복 변형 경험이 없는 집단은 교복 제작 시 학교규칙 내에서 유행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반면 실업계 학생과 교복 변형 경험이 있는 집단은 교복 제작 시 유행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실업계 학생과 교복 변형 경험이 있는 집단이 유행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5> 학교 유형과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의 차이

구 분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					x ²
		반영해야 한다 (n=495)	무시해야 한다 (n=26)	학교 규칙내 반영 (n=443)	기타 (n=15)	합계	
		N (%)	N (%)	N (%)	N (%)	N (%)	
학 교 유 형	인문계	189 (41.8)	7 (1.5)	252 (55.8)	4 (.9)	452 (100)	43.939***
	실업계	306 (59.2)	19 (3.7)	181 (35.0)	11 (2.1)	517 (100)	
변 형 경 험	있다	398 (61.3)	12 (1.8)	227 (35.0)	12 (1.8)	649 (100)	86.961***
	없다	96 (30.4)	14 (4.4)	203 (64.2)	3 (.9)	316 (100)	

*** $p < .001$

5)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연구문제 3-5>)는 다음과 같다.

(1) 블라우스

블라우스의 목둘레, 어깨너비, 앞폭, 뒤폭,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및 소매길이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블라우스 목둘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목둘레 부위에서 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커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6> 목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교복만족도	목 둘 레			F 값
	큼의 불만족 (n=281)	만족 (n=622)	작음의 불만족 (n=20)	
	M (S.D.)	M (S.D.)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170 (1.036) b	0.72 (.983) a	.114 (.802) ab	5.833**
신분 상징적 만족도	-.041 (1.040)	.018 (.978)	2.43 (.957)	.929
상의 활동 불만족도	.008 (.982)	-.019 (1.015)	.452 (.786)	2.163
관 리 불만족도	.008 (1.011)	-.015 (.994)	.270 (1.106)	.805
하의 활동 불만족도	.109 (1.014)	-.047 (.985)	.004 (1.266)	2.350

**p <.01

블라우스 어깨너비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상의 활동 불만족도, 관리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깨너비 부위에서 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고,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또한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한 집단에 비해 관리 불만족도가 높았다.

<표 37> 어깨너비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어깨너비			F값
	큼의 불만족 (n=243)	만족 (n=579)	작음의 불만족 (n=101)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170 (.995) b	.067 (.992) a	.022 (1.033) ab	4.865**
신분 상징적 만족도	-.041 (1.014)	.011 (.975)	.078 (1.076)	.551
상의 활동 불만족도	-.081 (1.009) b	-.029 (1.012) b	.366 (.845) a	7.898***
관 리 불만족도	-.005 (.987) ab	-.048 (1.005) b	.256 (.997) a	3.973*
하의 활동 불만족도	.031 (1.021)	-.042 (.995)	.181 (.984)	2.278

* $p < .05$ ** $p < .01$ *** $p < .001$

블라우스 앞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와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앞품 부위에서 만족집단이 커서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높게 나타났으며,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집단보다 상의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앞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앞 품			F값
	큼의 불만족 (n=246)	만족 (n=572)	작음의 불만족 (n=104)	
교복만족도	M (S.D.)	M (S.D.)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145 (1.013) b	.081 (.976) a	-.081 (1.056) ab	4.820**
신분 상징적 만족도	-.022 (1.019)	-.014 (.988)	.152 (.997)	1.316
상의활동 불만족도	-.075 (1.038) b	-.059 (.970) b	.502 (.956) a	15.194***
관 리 불만족도	-.099 (.998)	.031 (.986)	.047 (1.094)	1.572
하의 활동 불만족도	.067 (1.017)	-.023 (.996)	-.013 (1.006)	.705

** $p < .01$ *** $p < .001$

블라우스 뒤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와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뒤품 부위에서는 만족 집단이 커서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집단에 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뒤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뒤 품			F값
	큼의 불만족 (n=224)	만족 (n=595)	작음의 불만족 (n=103)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162 (1.014) b	.075 (.973) a	-.061 (1.075) ab	4.873**
신분 상징적 만족도	-.024 (.996)	-.019 (1.007)	.184 (.939)	1.930
상의 활동 불만족도	-.142 (1.011) b	-.023 (.974) b	.440 (1.034) a	12.629***
관 리 불만족도	-.047 (1.006)	.021 (.982)	-.039 (1.111)	.458
하의 활동 불만족도	.082 (.999)	-.021 (1.019)	-.036 (.911)	.937

** $p < .01$ *** $p < .001$

블라우스 가슴둘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와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슴둘레 부위에서는 만족 집단이 커서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집단 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가슴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가슴둘레			F값
	큼의 불만족 (n=230)	만족 (n=580)	작음의 불만족 (n=114)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217 (1.012) b	.073 (.964) a	.058 (1.104) ab	7.247**
신분 상징적 만족도	.022 (1.021)	-.044 (.960)	.203 (1.106)	2.993
상의 활동 불만족도	-.147 (1.036) b	-.031 (.976) b	.458 (.937) a	15.163***
관 리 불만족도	-.055 (1.013)	.026 (1.001)	-.048 (.989)	.663
하의 활동 불만족도	.110 (.972)	-.025 (.994)	-.077 (1.090)	1.905

** $p < .01$ *** $p < .001$

블라우스 허리둘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허리둘레 부위에서는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한 집단과 만족한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 허리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허리둘레			F값
	큼의 불만족 (n=301)	만족 (n=569)	작음의 불만족 (n=53)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076 (.998)	.045 (1.001)	-.094 (.994)	1.648
신분 상징적 만족도	.008 (1.023)	-.014 (.977)	.156 (1.066)	.707
상의 활동 불만족도	-.059 (1.041) b	-.009 (.987) b	.422 (.830) a	5.282**
관 리 불만족도	-.063 (1.011)	.025 (.984)	.006 (1.136)	.773
하의 활동 불만족도	.059 (.978)	-.041 (1.016)	.152 (.975)	1.606

** $p < .01$

블라우스 진동둘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와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진동둘레 부위의 치수에 있어서 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은 커서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진동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교복만족도 \ 치수 만족/불만족	진동둘레			F값
	큼의 불만족 (n=176)	만족 (n=636)	작음의 불만족 (n=109)	
	M (S.D.)	M (S.D.)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176 (1.043) b	.059 (.971) a	-.068 (1.084) ab	4.056*
신분상징적 만족도	.016 (1.016)	-.021 (.967)	.113 (1.134)	.860
상의활동 불만족도	-.098 (1.006) b	-.062 (.977) b	.548 (.967) a	19.129***
관 리 불만족도	.074 (1.053)	-.013 (.986)	-.066 (1.020)	.768
하의활동 불만족도	.063 (1.009)	-.021 (.998)	.041 (1.026)	.570

* $p < .05$ *** $p < .001$

블라우스길이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상의 활동 불만족도,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블라우스 길이에서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과 만족한 집단은 커서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집단에 비해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라우스길이의 치수가 커서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집단보다 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블라우스길이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블라우스 길이			F값
	큼의 불만족 (n=202)	만족 (n=562)	작음의 불만족 (n=158)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0.190 (1.005) b	.048 (.996) a	.069 (.987) a	4.726**
신분 상징적 만족도	-.011 (.977)	-.008 (1.003)	.052 (1.003)	.244
상의 활동 불만족도	-.199 (1.024) b	-.076 (.977) b	.526 (.887) a	29.048***
관 리 불만족도	-.015 (1.022)	.012 (1.002)	-.047 (.987)	.227
하의 활동 불만족도	.161 (.941) a	-.044 (.997) b	-.043 (1.080) ab	3.301*

* $p < .05$ ** $p < .01$ *** $p < .001$

블라우스 소매통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통 부위의 치수에 있어서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4> 소매통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소매통			F값
	큼의 불만족 (n=167)	만족 (n=611)	작음의 불만족 (n=144)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163 (1.025)	.035 (.990)	.045 (1.009)	2.752
신분 상징적 만족도	-.088 (.985)	-.011 (.988)	.165 (1.042)	2.675
상의 활동 불만족도	-.164 (1.034) b	-.061 (.975) b	.448 (.961) a	18.452***
관 리 불만족도	.025 (1.081)	.035 (.979)	-.074 (1.011)	.431
하의 활동 불만족도	.035 (.975)	.010 (1.003)	-.068 (1.037)	.462

*** $p < .001$

블라우스 소매길이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매길이 부위의 치수에 있어서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5> 소매길이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소매길이			F값
	큼의 불만족 (n=156)	만족 (n=681)	작음의 불만족 (n=86)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158 (1.010)	.039 (.997)	-.016 (.996)	2.475
신분 상징적 만족도	-.039 (1.009)	.017 (.979)	-.032 (1.122)	.261
상의 활동 불만족도	-.081 (1.053) b	-.049 (.988) b	.531 (.861) a	13.758***
관 리 불만족도	.021 (1.003)	-.012 (.991)	.024 (1.097)	.104
하의 활동 불만족도	.125 (.893)	-.009 (1.023)	-.129 (1.007)	1.956

*** $p < .001$

(2) 스커트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및 밑단둘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커트 허리둘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스커트 허리둘레 부위의 치수에 대해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스커트 허리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스커트 허리둘레			F값
	큼의 불만족 (n=336)	만족 (n=497)	작음의 불만족 (n=93)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010 (1.040)	-.007 (.969)	.052 (1.032)	.154
신분 상징적 만족도	-.004 (.985)	-.008 (.995)	.108 (1.058)	.549
상의 활동 불만족도	.063 (.981) ab	-.009 (1.004) b	.251 (1.011) a	5.478**
관 리 불만족도	.032 (.974)	-.015 (1.025)	-.046 (.992)	.320
하의 활동 불만족도	.063 (.993)	-.019 (.989)	-.099 (1.102)	1.194

** $p < .01$

스커트 배둘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커트 배둘레 부위에서는 커서 불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 집단에 비해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배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배둘레			F값
	큼의 불만족 (n=285)	만족 (n=534)	작음의 불만족 (n=107)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068 (1.060)	.007 (.972)	.126 (.974)	1.512
신분 상징적 만족도	-.010 (1.013)	-.024 (.972)	.190 (1.070)	2.103
상의 활동 불만족도	.083 (.979) a	-.107 (.991) b	.343 (1.024) a	10.663***
관 리 불만족도	.064 (1.012)	-.032 (.995)	-.024 (1.016)	.872
하의 활동 불만족도	.028 (1.032)	.008 (.963)	-.092 (1.112)	.579

*** $p < .001$

스커트 엉덩이들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을 제외한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신분 상징적 만족도, 상의 활동 불만족도 및 관리의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작아서 불만족하거나 만족한 집단이 큼의 불만족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작음의 불만족 집단이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은 만족한 집단에 비해 상의 활동 불만족도와 관리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8> 엉덩이들레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교복만족도	치수 만족/ 불만족	엉덩이들레			F값
		큼의 불만족 (n=300)	만족 (n=543)	작음의 불만족 (n=82)	
		M (S.D.)	M (S.D.)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151 (1.067) b	.040 (.966) a	.263 (.906) a	6.758**	
신분 상징적 만족도	-.066 (.970) b	.009 (.997) ab	.252 (1.074) a	3.280**	
상의 활동 불만족도	.049 (1.029) ab	-.071 (.999) b	.306 (.848) a	5.622**	
관 리 불만족도	.024 (1.016) ab	-.064 (.989) b	.293 (.969) a	4.764**	
하의 활동 불만족도	.080 (.988)	-.028 (1.009)	-.093 (1.000)	1.529	

** $p < .01$

스커트길이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와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커트길이의 치수에 대해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커서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 집단보다 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스커트길이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스커트 길이			F값
	큼의 불만족 (n=334)	만족 (n=499)	작음의 불만족 (n=93)	
	M (S.D.)	M (S.D.)	M (S.D.)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213 (1.060) b	.091 (.929) a	.250 (1.026) a	12.839***
신분 상징적 만족도	.045 (1.064)	-.011 (.918)	-.052 (1.157)	.478
상의 활동 불만족도	-.009 (1.055)	-.025 (.964)	.185 (.992)	1.751
관 리 불만족도	.017 (1.021)	-.034 (.968)	.108 (1.116)	.869
하의 활동 불만족도	.120 (.976) a	-.076 (1.000) b	.002 (1.077) ab	3.864*

* $p < .05$ *** $p < .001$

스커트 밑단둘레 부위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5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상의 활동 불만족도,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스커트 밑단둘레 치수에 대해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커서 불만족한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의 활동 불만족도는 작아서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의 활동 불만족도는 커서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밑단둘레 부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치수 만족/ 불만족	스커트 밑단둘레			F값
	큼의 불만족 (n=371)	만족 (n=504)	작음의 불만족 (n=51)	
교복만족도	M (S.D.)	M (S.D.)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260 (1.029) b	.162 (.944) a	.246 (.942) a	21.645***
신분 상징적 만족도	-.034 (1.035)	.04 (.933)	-.068 (1.304)	.752
상의 활동 불만족도	.064 (1.050) ab	-.077 (.967) b	.331 (.876) a	5.063**
관 리 불만족도	.010 (1.025)	-.036 (.977)	.255 (1.068)	1.998
하의 활동 불만족도	.125 (.983) a	-.085 (1.001) b	-.022 (1.073) ab	4.768**

** $p < .01$ *** $p < .001$

교복 각 부위에 대한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 차이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51>과 <표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치수에 대한 만족/불만족은 대체적으로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요인과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만족하거나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반면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하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의 활동 불편함은 상의가 작아서 느끼는 불만족인 반면 하의 활동 불편함은 스커트 폭 및 길이의 치수가 커서 느끼는 불만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TV매체나 언론들, 연예인들의 바디 이미지들이 점차적으로 마른 체형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상형의 기준을 키가 크고 마른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풍토의 구성이 모방의 심리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여고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여고생들은 슬림한 라인의 옷을 선호하고 맞거나 작아야 날씬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옷을 착용하였을 때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복의 치수가 작거나 맞아도 치수를 줄이는 변형이 많은 것은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블라우스보다 스커트에서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표 51>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요인명 부 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신분 상징적 만족도	상의 활동 불만족도	관 리 불만족도	하의 활동 불만족도
목둘레	**				
어깨너비	**		***	*	
앞 품	**		***		
뒤 품	**		***		
가슴둘레	**		***		
허리둘레			**		
진동둘레	*		***		
블라우스길이	**		***		*
소매통			***		
소매길이			***		

* $p < .05$ ** $p < .01$ *** $p < .001$



<표 52>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요인명 부 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신분 상징적 만족도	상의 활동 불만족도	관 리 불만족도	하의 활동 불만족도
허리둘레			**		
배둘레			***		
엉덩이둘레	**	**	**	**	
스커트길이	***				*
밑단둘레	***		**		**

* $p < .05$ ** $p < .01$ *** $p < .001$

4. 교복 업체 치수체계 현황 조사

본 연구의 제시된 <연구문제 4-1>, <연구문제 4-2>, <연구문제 4-3>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었다.

1)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은(<연구문제 4-1>) <표 53>에 제시된 것과 같다. 조사대상 업체의 교복 취급기간은 대부분이 5년 이상 취급하고 있었으며, 취급대상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모든 업체가 제주도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생산방식을 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본사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E업체에는 30%를, A업체에서는 수주되지 않는 교복 내에서, D업체에서는 특수체형에 대해서 자체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D업체에서는 자체 내에서 만든 교복 샘플을, E업체에서는 자체에서 개발한 패턴을 본사로 보내어 교복을 제작하고 있었다. 이는 교복 업체마다 교복 치수 및 디자인에 대한 관여 정도 및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리점에서는 본사의 구체적인 패턴 및 패턴사의 관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리점 자체에서 하청을 맡기는 업체를 제외하고 자체에 있는 패턴사의 유무 및 경력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대리점 자체 패턴사가 있는 업체는 2개의 업체이며 자체 패턴사의 경력은 두 개 업체 모두 20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패턴제작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리점 자체에서 교복 생산(하청) 시 직접 계측하는 부위로는 상의의 경우 가슴둘레, 등길이, 소매길이를 기본으로 계측하며 하의로는 3개 업체 모두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를 계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시 직접계측 부위로는 대부분이 업체에서 계측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측이 필요로 할 때는 상의는 가슴둘레를 하의에서는 허리둘레를 기본으로 계측하고 있었다. 그러

나 학생들은 판매자들의 계측한 치수를 기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교복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인원수를 좁은 공간에서 교복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치수에 민감한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현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학생들에게 있어 교복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표 53>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A	B	C	D	E	
취급기간		4년	5년	6년	5년	5년	
방식	생산	본사+대리점	본사	본사	본사+자체 하청	본사+대리점	
	판매	대리점	대리점	대리점 인터넷	대리점	대리점	
(대리점) 자체패턴사		○	×	×	×	○	
(대리점) 패턴사 경력		20년이상	×	×	×	20년이상	
직 접 계 측 부 위	자체 생산 시	상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	×	어깨너비 가슴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하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	×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판매 시	상의	가슴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소매길이	가슴둘레	가슴둘레	가슴둘레
		하의	허리둘레	허리둘레	허리둘레	허리둘레	허리둘레

2) 치수체계 현황

치수체계의 현황(<연구문제 4-2>)은 치수규격의 차이, 교복업체별 호칭, 기본 신체부위 및 업체별 제품치수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수규격의 차이

치수규격의 차이는 <표 54>과 같이 모든 업체가 같은 호칭이라도 매해 교복의 치수가 다르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슬림한 라인을 선호하는 유행경향 때문이며 이러한 교복 치수가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여기에서 재고의 부담은 본사에서 안지 않고 대리점이 안아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김경목, 1997) 치수규격이 매해 달라질 경우 같은 호칭 안에서 치수가 다른 교복을 동시에 판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재고와의 제품치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1개 업체의 협조를 받아 블라우스의 재고 제품을 계측하여 현 블라우스와 비교해 보았다. 제품치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앞품에서는 4cm, 뒤품 3.5cm, 가슴둘레 8cm, 허리둘레 6cm, 진동둘레 7cm, 어깨너비 3cm, 소매통 3cm의 편차로 현 교복의 치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런 재고 제품과의 치수편차는 호칭 증감분에 따른 치수 간격의 편차보다도 훨씬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복 색상에 대한 물음에서는 업체 대부분이 매해 색상이 틀리며 또한 상·하의가 같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의 색상이 틀릴 경우가 있어 교복 판매 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이런 색상차이는 염색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교복업체에서는 개별 및 같은 색상끼리 set판매, 다음 학기에 현 색상으로 맞추어서 주문하거나 판매량이 많은 아이템에 대해서 150~200%를 예측생산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수체계와 색상차이는 교복업체에서 판매 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복을 구입 및 재구입하는 학생들 또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교복 업체의 홈페이지(B업체, 2001)에서 학생들이 ‘같은 호칭 안에서 도 치수의 차이가 있었으며 색상 또한 같은 학년의 색상과 틀리고 선배교복의 색상과 같다’, ‘재고를 구입한 것 같다’, ‘교복안의 마크가 같은 학년의 마크가 아닌 선배의 마크와 같다’, ‘색상이 상·하가 틀리다’ 등의 불만사항이 적힌 게시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여고생 교복 착용실태조사에서 재구입 장소 및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색상차이로 인해 교복 재구입 시 구입장소를 선택할 때 많은 제한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3-3> 참조).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의 구입하는 교복의 치수와 수선요구의 차이에 관한 인터뷰에서 교복 구입 시에는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작은 치수를 구입하며 또한 작은 치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A/S의 요구부위 및 정도가 많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착용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 치수규격에 차이가 있는 지의 관한 질문에서는 2개의 업체가 치수규격에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두 집단간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의 치수 선호도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타이트한 것을 선호하며 이에 교복 치수에 있어서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의 교복치수보다 여유량을 적게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와 실업계 교복 치수규격에 차이가 없는 업체 중에서 1개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서도 치수규격에 있어 차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치수규격의 차이가 있는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3개의 업체가 차이를 두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체형 및 성장률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치수규격의 차이

현황 \ 업체	A	B	C	D	E
매해 치수규격 차이	○	○	○	○	○
인문계·실업계 치수규격의 차이	×	○	×	○	×
중·고등학생 치수규격의 차이	○	○	×	○	×

(2) 교복 업체별 호칭과 기본 신체부위

조사대상 업체의 생산/판매(취급)하는 호칭과 기본 신체부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호칭은 기본 신체부위가 다양할수록 많았으며 대부분이 생산하고 있는 호칭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수체형에 대해서는 직접계측을 하여 자체 및 하청을 통하여 제작하는 것(a)으로 나타났다. 기본 신체부위는 대부분의 업체가 가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노희숙·김효숙(1999)은 상의의 기본부위가 키-가슴둘레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사이즈는 청소년기에 이미 신체적으로 청년기 초의 성인 몸매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는 인체크기에 서의 커버울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즈 분류체계에 의한 결과라고 하였으며 좀더 기본부위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호칭표시는 대부분이 cm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상의에서 1개의 업체와 하의에서 2개의 업체가 과거의 호칭표시인 인치(inch)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호칭의 기본 신체부위가 업체마다 다르고 호칭수와 표시에도 차이가 있어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호칭체계의 통일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칭의 기본 신체부위가 한정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교복

호칭의 기본 신체부위를 설정할 때 좀 더 세분화 및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교복 업체별 호칭과 기본 신체부위의 치수는 <표 56>과 <표 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신장은 5cm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다. 상의에서는 가슴둘레 항목에서 3cm 간격을 하고 있으나 B, C업체에서 신장 175cm에서 가슴둘레 항목에서 4cm의 간격으로 하고 있으며, D업체에서는 판매가 많이 되는 가슴둘레 항목 범위 내에서 A/B로 구분하여 소매길리와 블라우스길리가 평균/평균 길이보다 1 inch 긴 치수를 표시하고 있다. E업체에서는 신장의 표시 없이 가슴둘레 항목에서 1 inch의 간격을 하고 있었다. 하의에서는 3개의 업체가 상의와 마찬가지로 신장에 있어서 5cm의 간격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허리둘레에서는 3cm의 간격을 하고 있었으며 2개의 업체에서는 허리둘레에서 1 inch의 간격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본 신체부위의 크기에 대한 일률적인 증감은 키는 작으면서 다른 부위의 크기가 크거나 반대로 키는 크면서 다른 부위의 크기는 작은 대상들을 커버하지 못하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교복 구입 시 자신의 체형에 적합하도록 보정하거나 수선해서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크기에 의해 체형을 분류하고 단순히 치수를 증감시킨 규격보다는, 신체의 형태를 고려하고 체형별로 크기를 분류하는 다양한 치수 규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교복의 호칭(치수)은 <표 56>과 <표 57>의 음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업체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D와 E업체에서는 블라우스에서 가슴둘레가 79~82cm(32inch), 스커트에서는 약 65~68cm에 해당하는 26~27inch에서 최빈 판매치수를 이루어 다른 업체 블라우스의 85~91cm, 스커트의 68~71cm의 최빈 판매치수와 비교할 때 작은 사이즈가 많이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D업체에는 과거의 가슴둘레가 85cm에 해당되는 블라우스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치수인데 반해 요즘은 가슴둘레가 79~82cm의 사이즈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교복 구입 시 일부러 한 두치수 작은 것을 구입해서 입는다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동아일보, 1997.03.27). 대부분의 업

체에서 많이 판매되는 교복 사이즈 내에서도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과 비교할 때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B, C업체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블라우스에서 85-155cm의 치수를 많이 구입하며 반면 인문계 학생들은 88-160cm의 치수를 많이 구입한다고 하였으며, D업체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이 79-145cm의 치수를 많이 구매하는 반면 인문계 학생들은 85-155cm의 치수가 많이 판매된다고 하였다. 스커트 또한 실업계 학생들이 A, B, C업체의 68-155cm, D, E업체의 26inch의 치수를 많이 구입하는 반면 인문계 학생들은 A, B, C업체의 71-160cm, D·E업체의 27inch의 치수를 많이 구매한다고 교복 업체 대표 및 직원들은 설명하고 있다.

<표 55> 교복 업체별 호칭과 기본 신체부위

업 체		현 황		A	B	C	D	E
		상 의	하 의					
(생산) 판매하고 있는 호칭수	상 의	(12) 9+a	(11) 11	(11) 11+a	(13) 13+a	(7) 7+a		
	하 의	(12) 8 +a	(11) 11	(10) 10+a	(10) 10+a	(8) 8+a		
호 칭 표 기	호 칭의 기본 신체부위	상 의	가슴둘레-키	가슴둘레-키	가슴둘레-키	*가슴둘레 (블라우스길이/소매길이)-키	가슴둘레	
	하 의	허리둘레-키	허리둘레-키	허리둘레-키	허리둘레	허리둘레		
호 칭 표시단위	상 의	cm	cm	cm	cm	inch		
	하 의	cm	cm	cm	inch	inch		

(* 최빈 판매치수에 대해 가슴둘레를 기본으로 블라우스길이·소매길이를 세분화 함)

<표 56> 교복 업체별 블라우스 호칭과 기본 신체부위의 치수

	A	B	C	D	E
	가슴둘레-키	가슴둘레-키	가슴둘레-키	가슴둘레* (소매길이·블라우스길이)-키	가슴둘레
블 라 우 스	76-140	76-140	76-140	76-140	
	79-145	79-145	79-145	79-145	31
	82-150	82-150	82-150	82(A/B)-150	32
	85-155	85-155	85-155	85(A/B)-155	33
	88-160	88-160	88-160	88(A/B)-160	34
기 준 신 체 치 수	91-165	91-165	91-165	91-165	35
	94-170	94-170	94-170	94-170	36
	97-170	97-170	97-175	97-175	37
	100-175	101-175	101-180	101-180	38
	103-180	105-175	105-185	105-180	
	106-180	110-180	109-190		
	109-185		113-190		

(*가슴둘레에 평균 소매길이·블라우스길이를 A평균보다 1 inch 긴 소매길이·블라우스길이를 B로 표시한 것임)

<표 57> 교복 업체별 스커트 호칭과 기본 신체부위의 치수

	A	B	C	D	E
	허리둘레-키	허리둘레-키	허리둘레-키	허리둘레	허리둘레
스 커 트	59-140	59-140	59-140	24	24
	62-145	62-145	62-145	25	25
	65-150	65-150	65-150	26	26
	68-155	68-155	68-155	27	27
	71-160	71-160	71-160	28	28
기 준 신 체 치 수	74-165	74-165	74-165	29	29
	77-170	77-170	77-170	30	30
	80-170	80-170	80-175	31	31
	83-175	83-175	83-180	32	
	86-180	86-175	86-185	33	
	89-180	89-180	89-190		
	91-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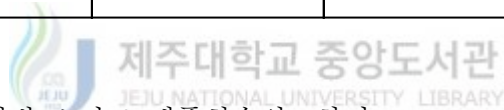
(3) 교복 업체별 제품치수 비교

조사대상 업체의 치수내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의는 가장 많은 생산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는 호칭(85-155)을 선정하였고 하의는 조사대상자들의 응답한 최빈 허리둘레치수(65cm)를 기준으로 호칭(65-150)을 선정하였으며 호칭의 기본 신체부위가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치수를 조사하였고 inch로 호칭을 구분한 곳은 제외시켰다. 즉, 상의는 A, B, C, D업체의 교복 제품치수를 비교하였고 하의는 A, B, C업체의 제품치수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디자인의 차이로 인한 제품치수 오차를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J고등학교의 하복으로 선정하여 계측하였다. 기준호수에 대한 부위별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 <표 58>과 <표 5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블라우스의 경우 어깨너비의 제품치수는 35.5~38cm까지 2.5cm 차이를 나타냈고 앞품의 제품치수는 31~33cm까지, 뒤품은 34~35cm까지, 가슴둘레는 88~90cm까지, 허리둘레는 80~86cm까지 6.0cm의 차이를 나타내어 블라우스 부위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가장 큰 부위로 나타났다. 진동둘레의 제품치수는 43~45cm까지, 블라우스길이는 48.5~50.5cm까지, 소매통이 29~33cm까지 소매길이가 19.5~22cm까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스커트의 경우 기준호칭에 대한 허리둘레 제품치수는 조사대상 업체 모두 65cm로 모두 일치하였으나 배둘레의 제품치수는 78~80cm까지, 엉덩이둘레는 88~92cm까지 4cm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스커트 길이는 56~57cm까지, 밑단둘레는 94~102cm까지 8.0cm의 차이를 나타내어 최소값 최대값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름 박음선의 길이는 22.5~25cm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업체별로 호칭체계가 다르며 호칭체계가 같은 업체의 동일한 호칭 내에서도 제품치수가 각각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희련, 1994; 김덕하, 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김희련, 1994; 김덕하, 2000)에서는 호칭에 따른 증감분 편차도 업체마다 다르게 나타났고 같은 업체라도 호칭의 증가에 따른 제품치수 증가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교복 구입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표 58> 교복 업체별 블라우스 제품치수의 차이

단위(cm)

호 칭 부 위	85-155		차이
	최소값	최대값	
어깨너비	35.5cm	38cm	2.5cm
앞 품	31cm	33cm	2cm
뒤 품	34cm	35cm	2cm
가슴둘레	88cm	90cm	2cm
허리둘레	80cm	86cm	6cm
진동둘레	43cm	44.5cm	1.5cm
블라우스길이	48.5cm	50.5cm	2cm
소매통	29cm	33cm	4cm
소매길이	19.5	22cm	2.5cm



<표 59> 교복 업체별 스커트 제품치수의 차이

단위(cm)

호 칭 부 위	65-150		차이
	최소값	최대값	
허리둘레	65cm	6cm	0
배둘레	78cm	80cm	2cm
엉덩이둘레	88cm	92cm	4cm
스커트길이	56cm	57cm	1cm
밑단둘레	94cm	102cm	8cm
주름박음선	22.5cm	25cm	2.5cm

3) 수선요구 현황

수선요구 현황(<연구문제 4-3>)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치수가 커서 줄이기 위해 수선을 요구하는 경우로 블라우스보다 스커트의 수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의 수선요구 부위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블라우스길이 및 소매통을 줄이기 위한 수선요구가 많으며, 스커트인 경우에는 엉덩이둘레와 스커트길이 및 밑단둘레를 줄이거나 주름박음선 길이를 늘리는 수선요구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교복 변형의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부위한 일치하는 것이다. 블라우스의 허리둘레와 스커트의 허리둘레 및 스커트길이를 줄이는 과거의 수선요구와 비교하면 블라우스길이를 짧게 줄이고, 스커트의 엉덩이둘레, 스커트 밑단둘레를 줄이는 수선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은 스커트의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교복을 구입한 후 허리둘레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선요구는 인문계 학생들보다 실업계 학생들이 요구빈도가 빈번하고 요구정도 또한 많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 언급된 학교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사항이다(<표 11>, <표 12>, <표 13> 참조). 한편, 학생들의 변형 실태조사에서 변형율이 높게 나타난 어깨너비 부위는 교복 업체의 수선요구 부위에서 설명되고 있지 않아 이 부위는 다른 장소에서 수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교복업체에서 수선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A, B, C의 업체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수선 및 변형에 대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학교규칙 범위 내에서만 수용하고 있었다. 반면 D, E업체에서는 모든 수선은 다 수용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교복 변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제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합의하에서 수선을 해주고 있었으며 D업체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수리에 대해서는 수선비용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모든 교복업체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수선요구 부위 및 정도가 유행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들이 수선을 하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교복

업체들이 극단적인 수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복을 수선하는 장소로 대리점(21.4%)이 아닌 세탁소(32.1%)와 수선집(32.0%)에서 교복을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에서 직접(14.2%) 수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수선장소를 선택하는 물음에서 복수 응답이 많아 수선이 학생의 요구와 맞지 않을 경우 여러 군데에서 수선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 60> 교복 업체별 수선요구 현황

		A	B	C	D	E
수선 요구 부위	블 라 우 스	허리둘레 블라우스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소매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소매통 소매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블라우스길이	허리둘레 블라우스길이
	스 커 트	영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영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허리둘레 영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주름박음선	영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주름박음선	배둘레 영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주름박음선
수선요구 수용범위	학교규칙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 범위 내에서	수용	수용	
수선비용	×	×	×	△	×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교복 변형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복 변형과 그와 관련한 치수 만족/불만족과 교복만족도가 학교 유형과 체형 지각을 비롯하여 교복 변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교복 변형의 원인 및 치수의 불만족 이유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 5개의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치수체계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는 교복치수의 만족/불만족 및 변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교복 치수에 대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복 치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이로 인해 교복 변형을 극소화하여 올바른 교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 교복만족도와 교복 업체 치수체계 현황 조사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복 변형은 교복 변형의 실태, 학교 유형과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 변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연구문제 1-1>), 전체 응답자중 67.3%가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형은 대부분 블라우스보다 스커트에서 줄이는 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 부위로는 블라우스에서는 어깨너비, 허리둘레, 블라우스길이, 가슴둘레 부위 순으로 변형을 많이 하였으며 스커트는 스커트길이, 주름, 엉덩이둘레 부위 순이었다. 변형의 가장 큰 이유로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였으며 변형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교규제 때문에'가 가장 많았다. 교복 변형에 대한 견해로는 '교복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몸에 맞게 고칠 수 있다(33.6%)',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25.6%)'등의 견해로 전체 의견 중 88% 이상이 교복 변형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1-2>), 실업계 학생들이 교복 변형 경험이 많았으며 각 부위별 변형에서는 블라우스의 목둘레, 어깨너비, 앞품, 뒤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 길이, 소매통 및 소매길이와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밑단둘레 및 주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 변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1-3>), 마름/평균 지각이 비만 지각보다 교복 변형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부위별 변형에서는 블라우스의 소매길이와 스커트의 허리둘레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복의 치수 만족/불만족은 치수 만족/불만족의 실태조사와 학교 유형, 체형 지각 및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수 만족/불만족의 실태조사 결과(<연구문제 2-1>) 교복 구입 시 치수선택 기준으로 블라우스에서는 어깨너비를, 스커트는 허리둘레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 만족/불만족의 부위를 살펴본 결과 치수의 불만족은 작음의 불만족보다 큼의 불만족이 많았으며 스커트 부위가 블라우스 부위보다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큼의 불만족 부위로는 블라우스에서는 허리둘레, 스커트는 밑단둘레부위였으며, 작음의 불만족 부위로는 블라우스에서는 블라우스길이, 스커트에서는 배둘레 부위로 나타났다. 불만족 부위로는 대부분이 변형율이 높은 부위와 일치하고 있었다. 만족 부위로는 블라우스의 소매길이, 스커트의 엉덩이둘레 부위로 나타났다. 교복 치수의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스커트 폭이 커서 불편하다(33.8%)’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교복치수가 전체적으로 크다(17.1)’, ‘체형에 맞지 않고 사이즈도 없으며 또한 업체별로 치수가 틀리다(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유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2-2>), 블라우스의 목둘레, 앞품, 뒤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및

소매길이와 스커트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및 밑단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만족율이 높았으며 불만족에서는 블라우스에서 실업계 학생들이 변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큼의 불만족율이 높았고, 작음의 불만족은 인문계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커트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큼의 불만족과 작음의 불만족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셋째, 체형 지각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2-3>) 블라우스의 목둘레, 앞폭,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및 소매통 부위와 스커트의 허리둘레와 배둘레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평균 지각이 비만 지각보다 만족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에서는 비만 지각이 마름/평균 지각보다 작음의 불만족율이 높았고, 마름 지각은 비만/평균 지각보다 큼의 불만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2-4>) 블라우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스커트는 허리둘레, 스커트길이와 밑단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변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만족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에서는 변형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큼의 불만족율이 높은 반면 변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작음의 불만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만족도는 교복만족도 평가차원을 규명하고 학교 유형, 체형 지각, 교복 변형과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만족도 평가차원들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문제 3-1>)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하의 활동 불만족도, 신분 상징적 만족도, 상의 활동 불만족도, 관리 불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순으로 나타나 여고생들이 교복 스커트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3-2>),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하의 활동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보다 관리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체형 지각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3-3>) 비만이라고 지각한 학생이 평균이라고 지각한 학생보다 상·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3-4>) 교복 변형경험이 없는 학생이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하의 활동에 있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3-5>)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만족하거나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복 업체 치수체계 현황 조사는 생산/판매의 일반적 현황, 치수체계 현황과 수선요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판매의 일반적 사항을 조사한 결과(<연구문제 4-1>) 대부분이 본사에서 생산하고 특수체형에 대해서는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및 하청을 맡기고 있었다. 판매 시 계측부위로는 상의는 가슴둘레를, 하의는 허리둘레를 계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수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연구문제 4-2>) 대부분이 치수와 색상이 매해 달라져 같은 호칭 내에서도 재고와의 치수와 색상의 차이로 인해 교복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의 교복 구매 및 재구매 시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치수규격에는 2개의 업체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었다. 인문계·실업계 여고생의 치수규격에는 3개의 업체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었으나 치수규격 차이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1개업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복 업체별 호칭 기본 신체부위 및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 호칭 기본 신체부위가 세분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수간격이 기본 신체부위의 크기에 대한 일률적인 증감으로 다양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칭체계가 업체별로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동일한 호칭 내에서도 업체별 제품치수의 편차가 크고 동시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부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수선요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연구문제 4-3>), 블라우스보다 스커트에서 수선요구가 많으며 대부분이 줄이는 수선으로 늘리는 수선은 매우 드물다고 하였다. 수선요구 부위로는 여고생의 변형부위와 대부분이 일치하였다. 학교 유형에 따른 구매호칭 및 수선요구를 조사한 결과 실업계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이 구매하는 교복치수와 수선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작은 치수의 교복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선요구가 빈번하고 둘레 및 길이를 줄이는 정도 또한 크다고 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 고등학교 및 교복 업체가 제주지역으로 한정되어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착의 시 느끼는 치수만족도는 그 시대의 패션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경향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 결과를 고찰할 경우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품목을 하복에 한정하였는데, 하복은 가격의 저렴성으로 인해 교복을 변형을 하기보다는 재구입하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또한 착용기간이 짧아서 교복 변형을 파악하는데 다소 미약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인문계 학생들은 여자 고등학교 학생인 반면 실업계는 여자 고등학교가 제주도에 1개의 학교만이 설립되어 있는 관계로 남녀 공학인 학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서로 일관성을 갖지 못하였다.

다섯째, 여고생의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과 교복만족도를 구체적인 각 부위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연관시키지 못하였다.

3. 연구결과의 적용 및 제언

본 연구결과의 적용 및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들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서 블라우스의 어깨너비, 허리둘레 및 블라우스길리와 스커트의 엉덩이둘레, 스커트길리와 밑단둘레 부위에서 변형을 많이 하며 치수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 이 부위의 패턴제작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세부적인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에 따라 세분화된 치수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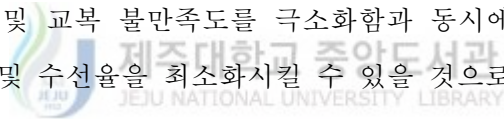
둘째, 여고생들은 절반이상이 스커트부위에서 변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큼의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교복만족도 중 스커트가 커서 느끼는 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복 치수의 대한 불만사항 조사에서도 스커트의 폭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주도 지역 특성상 바람이 불어 활동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서 느끼는 불만족은 교복만족도에서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교복 스커트에 대한 스커트 폭 수정 및 디자인 개발 등의 개선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바지 병행 착용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이 체형 지각, 변형율, 치수 만족/불만족, 교복만족도와 교복 제작 시 유행성 반영정도 등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복 업체에서는 인문계와 실업계 여고생들의 구매호칭과 수선요구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고생의 교복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이들의 특

정을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치수에서 차별화된 의복으로 의복의 맞춤새 및 치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체형 지각에 따라 변형율과 치수 만족/불만족 부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형지각에서도 비만지각은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족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복만족도에서 상·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교복 치수에 대한 개선사항중 각 체형별로 치수를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표준에 기준을 둔 교복 사이즈 체계가 좀 더 세분화·다양화되어 각 체형의 특성에 맞게 패턴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신체계측을 통한 실제체형과 체형지각에 따라 치수만족도 및 교복 변형을 연구하여 실제체형 및 체형지각을 고려한 치수체계 개발 및 의복설계시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교복 착용 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결과 및 제언을 토대로 한 치수체계는 여고생들의 치수만족도를 높이고 교복 변형 및 교복 불만족도를 극소화함과 동시에 교복 치수의 부적합성에 의한 재고율 및 수선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고애란·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3, 31-41.
- 공업진흥청(1997),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
- 구양숙·추태귀(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 구자명·이명희(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 국민일보(1997), '중고생 10명중 7명 학교생활 힘들어요' 1997년 1월 16일자.
- 권숙희(1982), 여고생의 Bodice 기본원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목(1997), 우리나라 교복상표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순(1993), 여중생 교복 실태 및 디자인 선호에 따른 교복 디자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1990), 고등학교 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김미숙(1997), 유행선도력에 따른 여고생의 구매전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3).
- 김경희·임양순(1995), 강원지역 여자고등학생들의 식생활 행동과 체중조절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7(1), 29~46.
- 김기남(1982), 식습관과 체격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향학회지, 15(3), 194~201.

- 김덕하(2000), 성장률을 고려한 여중생 교복 맞춤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들련(1995), 여고생들의 체형 인식차이에 따른 식생활 행동과 심리 상태에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 김미선(1990), 여고생 자율교복에 관한 디자인 개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김경희(2000), 여고생의 Bodice 기본원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의류학회지, 24(7), 1004-1014
- 김미영(1984),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와 외모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혜(2000), 학급풍토지각과 자아개념, 진로선택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문계와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화(1992), 교복착용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가 사회적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숙(1990), 전북지역 중년기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 김용주(1988), 여고생들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섭식태도 및 식품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23-29.
- 김윤희(1991), 여자 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1987), 남자 고등학생 겨울용 교복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90), 서울시 남·여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의 차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식(1981), 여학생의 교복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권숙희·서추연(1994), 여고생 체형분석에 의한 인대연구, 한국의류회지, 18(1).
- 김혜영(1993), 여고생의 교복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포항선린전문대학 논문집, 13.
- 김화순(2001), 여중생의 교복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련(1994), 남자중학생 교복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자·이승희(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이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 노희숙(1997), 6~17세 여자의 체형특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희숙·김효숙(1999), 성장기 여학생의 체형에 따른 사이즈 스펙의 분류, 생활문화·예술논집, 22(1), 61-74.
- 노희숙·이순원(1995), 의복치수규격 설정을 위한 성장기 여학생의 체형변화에 관한 연구-비만, 수척의 관점에서-. 한국의류학회지, 19(3).
- 도종수(1995), 신세대의 특성이해를 위한 의식조사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20.
- 동아일보(1997), 여중고생 「교복개조」 유행...치마는 짧게 블라우스는 꼭끼게, 1997년 3월 27일자.
- 동아일보(2000), “중·고 여학생 치마-바지 선택 맘대로”...교복 자율화 방침, 2000년 3월 19일자.
- 박선영(1998), 성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의복착용스타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이연화·김연순·이경애·김순경(1994), 대학생의 체형 만족 태도 및 비만 실태조사, 순천향대학교 논문집, 17(1), 159~165.

- 박영숙 · 이연화 · 최경숙(1995), 대학생의 인식체형과 체격지수에 의한 비만도의 차이 및 체중조절태도, 한국문화학회지, 10(5), 356-375.
- 박영애(1998),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우미(1993), 우리 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정희(1998), 여고생의 교복착용태도와 의복행동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혜(1981), 한국 여학생 교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1994), 여자 중 · 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연구 -서울시내 여자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용식(2000),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영 · 이선재(1999), 고교생의 가치성향과 의복 행동 및 의복구매동기에 관한 연구-개인주의/집단주의를 중심으로-, 복식학회, 47.
- 백승희(2000), CAD를 이용한 교복디자인 개발 경로 연구, 인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현순(1983),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섭식 태도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 특별시 교육청 통계자료(2000), www.sen.go.kr/law/index-a.html.
- 서추연(1994), 여고생이 체형특성을 고려한 상반신 길 원형 설계 및 착의 평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섬유저널(1995), 수퍼주니어를 주목하라, 섬유저널, 9, 108-140.
- 손원교(1974), 한국여고생의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2.
- 손원교(1977), 여고생의 의복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

- 손희순(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인희(1990), 우리나라 남녀 중고등학교 교복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경해(1999), 여자중학생의 체형특성과 교복 치수설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1991), 여고생의 교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 이남범(1985), 문제여고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의식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충청남도내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학회지, 46.
- 이명희·이은실(2000),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2).
- 이봉화(1979), 남자 중·고등학생 교복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동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1996),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김현식·손원교(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 이소은(2001),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자(1980), 여고생 교복의 실태와 기능성에 관한 조사연구-하복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지(1993),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 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희(1988),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1996),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와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운(1981),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임숙자(2001),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음성 만족도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1).
- 이요원·임양순(1998), 중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 조절태도-강원도 영월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0(1), 17~27.
- 이은실·이명희(1999),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정보탐색 및 유행몰입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3).
- 이인자(1992), 교복 착용여부와 청소년 비행행동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 이혜경(2000),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양순(1996), 대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태도 교육 연구, 제6집, 강원대학교 교육 연구사, 163-165.
- 임영희(1989), 여대생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섭식 태도 및 식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논문집, 8(2), 115.
- 장혜경·김인숙(1999), 여고생(16~18세)의 체형분류(제1보)-정면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3(6).
- 정연석(1988), 신청년 심리학, 서울 법문사.
- 정재은(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이순원(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지, 17(3), 448-458.

- 조진숙(1990), 교복 디자인 개발 연구-여고생 추동용 교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봉순(1998), 대구지역 여대생의 체형 불안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7(2), 75~91.
- 최종명·김희숙(2000), 여고생 하복의 착용만족도 및 하복용 직물의 쾌적성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8(1)
- 한국일보(1994), 한국인의 생활의식과 행동경향조사, 1994년 9월 20일자
- 허정아(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선옥(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시 영향 집단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선희·왕성근·신윤희(1998), 청소년기 비만 여학생들의 체형만족도와 적응기능, 神經精神醫學, 37(5), 952-961.
- 황진숙(1997), 남녀 노년층의 자아존중과 기성복 만족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1(8).
- Douty, H.J. & Brannon, E. L.(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for Journal, 13(2), 122-137.
- Garrison, K.C.(1951), Psychology of Adolescence, N.Y. Prentice-Hall.
- Hogge, V.E., Bear, M & kang-Park, J.(1988), Clothing for Elderly and Non-Elderly Men: A Comparison of Preferences, Perceived Availability and Fitting Problems, Clothing Textiles Research Journal, 6(4), 47-53.
- Hurlock, E.B.(1973), Adolescence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Hurlock, E.B.(1978), Developmental Psychology 4thed, Newdelhi, Tata cgrow-Hill Pubishing co. Ltd.
- Kaiser, S.B.(1990), The Social Psychol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2nded)N.Y.

- MacmillanLennon, S.J.(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6-203.
- McLean F.P.(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Univ.
- Moses, N., Banilivy, M-Max. and Lifeshifz, F.(1989), Fear of obesity among adolescent girl. J.Pediar, 3(3).
- Ponton LE(1995), A review of eating disorders in adolescents, Adolescence Psychiatry, 20, 267-285.
- Ryan, M.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chauss, A.G(1987), Nutrition and behavior, J. Appl.Nutr., 35(1), 38.



부 록

<부록 1> 여고생 교복착용 설문지

<부록 2> 교복업체 설문지

<부록 3> 조사대상자의 교복 구입 및 재구입에 관한 사항

<부록 4> 교복 업체별 일반적 현황

<부록 5> 교복 제품치수 계측항목 및 방법

<부록 6> 학년별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 및 교복만족도

<부록 7> 학교별 디자인,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 및 교복만족도

<부록 1> 여고생 교복착용 설문지

NO. _____

조사일자 _____

조사장소 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고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여고생에게 잘 맞는 교복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응답해 주신 자료는 오직 연구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질문에 응답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연구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 7월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지도교수 : 권 숙 희 ☎ 064-754-3532

연구자 : 김 혜 정 ☎ 064-754-3530

A. 다음은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이며 절대 공개되는 일이 없으므로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이름: ()고등학교
2. 학년:()
3. 신장:()cm, 체중:()kg, 가슴둘레:()cm, 허리둘레:()cm
4. 자신은 어떤 체형에 속한다고 생각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① 비만이다. ② 평균이다. ③ 말랐다.
5. 가족의 월수입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① 100만원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만원이상

B. 다음은 교복(하복) 구입 및 재구입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O 표해 주십시오.

1. 교복은 어떠한 형태로 구입하셨습니까?
 ① 맞춘다. ②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을 구입한다.
2. 귀하께서 교복 구입 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십니까?
 ① 자신 ② 어머니 ③ 자매 ④ 친구
 ⑤ 판매원 ⑥ 선배 ⑦ 기타()
3. 현재 입고 있는 교복의 상표명은 무엇입니까?
 ① 스마트 ② 아이비 클럽 ③ 에리트 ④ 프리모 ⑤ 정희직물
 ⑥ 영스타 ⑦ 이따리아 ⑧ 아이니 ⑨기타()
4. 귀하께서 교복(하복)을 재구입하신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고 그곳을 재구입 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① 전에 구입했던 교복점 (이유:)
 ② 다른 교복점 (이유:)
 ③ 기타 ()
5. 귀하께서 지금까지 구입한 교복(하복)은 몇 벌입니까?
 ① 블라우스:(벌) ② 스커트:(벌)
6. 현재 입고 있는 교복(하복)의 호수
 ① 상의 :() ② 하의 :()

C. 다음은 교복만족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O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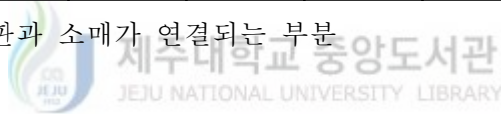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 다.	그렇 지 않 다.	약간 그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학교 교복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2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하여 만족한다.							
3	교복을 입으면 집단 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게 된다.							
4	교복을 통학복 외에 외출복으로도 입는다.							
5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6	계단을 올라갈 때 불편함을 느낀다.							
7	학생신분에 알맞고 단정해 보인다.							
8	스커트가 바람에 날려 불편하다							
9	우리 학교의 교복은 얼룩이나 때가 쉽게 탄다.							
10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11	우리학교의 교복은 활동하기에 편리하다.							
12	교복색상이 마음에 든다.							
13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14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							
15	하의가 스커트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16	세탁과 손질이 쉽다.							
17	몸을 너무 구속한다.							
18	보풀이 잘 생긴다.							
19	여러번 세탁하면 교복 모양이 변한다.							
20	교복을 입으면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21	교복은 소속감이 생기고 급우들과 어울리기에 더 편하다.							

2. 귀하께서 교복을 착용했을 때 각 부위에 대한 치수는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O표해 주세요

(1) 블라우스

	매우 크다	크 다	약간 크다	적당하다	약간 작다	작 다	매우 작다
목둘레							
어깨너비							
앞 품							
뒤 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소매길이							

※ 진동둘레 : 목판과 소매가 연결되는 부분



(2) 스커트

	매우 크다	크 다	약간 크다	적당하다	약간 작다	작 다	매우 작다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3. 귀하께서 교복(하복) 착용에 있어 치수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1) 불만족스러운 점 ()
- (2) 개선되어야 할 점()

E. 다음은 교복(하복)고치기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O 표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교복을 고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교복을 한번이라도 고친 경험이 없으신 분은 4번으로 가세요.

2. 귀하께서 교복을 고친 부위는 어디입니까? 교복을 고친 경험이 있으신 분만 해당되는 곳에 O표해 주세요

(1) 블라우스

	매우 많이줄임	많이 줄임	약간 줄임	고치지 않음	약간 늘림	많이 늘림	매우 많이늘림
목둘레							
어깨너비							
앞 품							
뒤 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진동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소매길이							

(2) 스커트

	매우 많이줄임	많이 줄임	약간 줄임	고치지 않음	약간 늘림	많이 늘림	매우 많이늘림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밑단둘레							
※ 주름							

※ 주름을 깊게 박거나 주름박음선 길이를 늘리는 것으로 줄임 방향을 갈수록 스커트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3. 귀하의 교복을 고치는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 ① 교복을 구입했던 대리점 ② 수선집 ③ 세탁소
④ 집에서 직접 ⑤ 기타()

☞ 4번부터는 모두 답해 주세요.

4. 교복을 고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행이므로 ②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③ 치수가 맞지 않아서
④ 활동하는데 불편해서 ⑤ 자기 스타일(개성)이 아니므로
⑥ 뜯어지거나 터져서 ⑦ 기타()

5. 교복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치수가 잘 맞아서 ② 번거러워서 ③ 활동에 불편할 것 같아서
④ 학교규제 때문에 ⑤ 신체성장을 고려해서 ⑥ 기타()

6. 귀하께서는 교복을 고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
② 교복다움이 없어지므로 싫다.
③ 교복도 유행에 맞추어 고쳐 입을 수 있다.
④ 활동하기 불편할 것이므로 좋아하지 않는다.
⑤ 몸의 곡선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이므로 싫다.
⑥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몸에 맞게 고쳐 입을 수 있다.
⑦ 학교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복을 고치는 것은 괜찮다.
⑧ 기타()

7. 귀하께서는 교복업체에서 교복 제작시 유행성 반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영해야 한다
② 무시되어야 한다.
③ 학교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행성을 반영해야 한다.
④ 기타()

*****질문에 빠진 응답이 없는지 다시 한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교복 업체 설문지

NO _____
조사일자 _____
조사장소 _____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고생 교복(하복)에 대한 생산, 판매현황 및
치수 체계에 관한 조사 연구의 기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
니다. 이 모든 조사자료는 공개되는 일없이 연구의 자료로만 사
용되고 여타 다른 용도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
립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2001년 9월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지도교수 : 권 숙 희 ☎ 064-754-3532

연구자 : 김 혜 정 ☎ 064-754-3530

12. 귀 업체에서 생산하는 교복 치수규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십니까?

(1) 상의 () (2) 하의 ()

- ① 실제 계측치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다.
- ② 한국공업규격(KS)의 치수를 이용한다.
- ③ 외국의 기준치를 참조한다.
- ④ 기타()

13. 교복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직접 계측하는 부위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1) 생산 () (2) 판매 ()

(1) 상의

- ① 어깨너비 ② 가슴둘레 ③ 허리둘레 ④ 등길이
- ⑤ 소매길이 ⑥ 전체길이 ⑦ 기타()

(2) 하의

- ① 허리둘레 ② 배둘레 ③ 엉덩이둘레 ④ 스커트길이 ⑤ 기타()

13-1) 만약 계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위입니까?

(1) 상의 ()

(2) 하의 ()

B. 다음은 귀 업체의 교복 치수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교복 색상이 매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LIBRARY

- ① 예 ② 아니오

1-1)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2) 색상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2. 교복 상·하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1)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 색상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3. 같은 호칭 내에서 매해 교복 치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부록 3> 조사대상자의 교복 구입 및 재구입에 관한 사항

<부록 3-1> 교복 구매시 영향력 행사자

	자신	어머니	자매	친구	판매원	선배	기타	합 계
빈도 (%)	275 (27.5)	272 (27.2)	32 (3.2)	332 (33.2)	19 (1.9)	28 (2.8)	41 (4.1)	999 (100)

<부록 3-2> 조사대상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상표명

복수응답

상표명	A	B	C	D	E	F	G	H	기타	합 계
빈도 (%)	150 (14.5)	109 (10.5)	179 (17.3)	298 (28.8)	40 (3.9)	13 (1.3)	74 (7.1)	76 (7.3)	97 (9.4)	1007-1036 (100)

1007(응답자)-1036(복수응답) /음영 표시된 업체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교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본 연구 내용에서는 위 알파벳 순서와 무관하다

<부록 3-3> 교복 재구입 및 그 선택이유

	선택이유	빈도(%)
전에 구입했던 교복점 71(60.2)	가격이 저렴해서	11(21.7)
	구입했던 곳이라서	9(17.6)
	편해서	7(13.7)
	전 교복색상과 맞춰야 하나(업체마다 색상틀림)	7(13.7)
	사이즈가 맞아서	5(9.8)
	부모님 권유로	3(5.9)
	기타(스타일이 맘에 들어서, 가까워서, 친분관계)	2(3.9)
다른 교복점 34(28.8)	가격이 저렴해서	7(13.7)
	전 교복점보다 디자인이 좋아서	11(28.2)
	타인권유	8(20.5)
	전 교복점보다 사이즈가 맞아서	6(15.4)
	기타(부모권유, 전교복점이 불친절하고 맘에 안들어서)	5(12.8)
기타(학교에서 구입) 13(11)	무응답	9(23.1)
		0

* 빈도수가 차이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부록 4> 교복 업체별 일반적 현황

<부록 표 8> 교복 업체별 일반적 현황에서 제외된 사항

현황		업체		A	B	C	D	E
광고 (판촉)	대리점	본사		TV·라디오 ·잡지책	TV·라디오 ·잡지책	TV·라디오 ·잡지책	×	×
		동북		사은품증정	사은품증정	사은품증정	사은품증정 가격할인	사은품증정 가격할인
		하북		×	×	×	×	가격할인 (전단지)
강조하는 장점		소재·디자인 의 우수성		소재 및 전통성	소재 및 디자인의 우수성	학생취향을 고려한 사이즈·A/S	체형을 고려한 사이즈· 저렴한가격 ·A/S	
착용자 건의 수용방법		직접면담 인터넷의견		직접면담 인터넷의견	직접면담 인터넷의견	직접면담	직접면담	
가 격	블라 우스	할인가:23000 정가:25,000		25,000	25,000	할인가:25,000 정가:미확인	할인가:20,000 정가:25,000	
	스커트	할인가:35,000 정가:40,000		40,000	40,000	할인가:30,000 정가:미확인	할인가:30,000 정가:35,000	

<부록 5> 교복 제품치수 계측항목 및 방법

<부록 5> 교복 제품치수 계측항목 및 방법

계 측 항 목		계 측 방 법
블 라 우 스	어깨너비	앞·뒷길의 SP에서 시작하여 뒤중심선 칼라달림선을 지나 반대쪽 같은 지점까지를 잰 거리
	앞 품	패턴에서 앞진동둘레선/2 지점 확인한 후 그 점에서 앞중심선까지 ×2를 수평으로 잰 거리
	뒤 품	패턴에서 뒤진동둘레선/2 지점 확인한 후 그 점에서 뒤중심선까지 ×2를 수평으로 잰 거리
	가슴둘레	단추를 잠근 상태에서 앞뒷길 중심을 맞춘 후 길과 소매 암홀선 접힌 곳이 만나는 점에서 반대쪽 점까지를 구김없이 놓고 ×2를 직선으로 잰 길이
	허리둘레	단추를 잠그고 패턴에서 지정된 허리선 확인한 후 ×2를 직선으로 잰 길이
	진동둘레	앞·뒤 진동둘레선을 줄자로 돌려가며 잰 길이
	블라우스길이	뒤길중심 칼라달림선에서 아래쪽 밑단까지를 잰 길이
	소매길이	소매를 편하게 놓고 앞·뒷길 SP중심에서부터 소매부리단까지를 잰 거리
	소매통*	짧은 하복 소매부리를 돌려가며 줄자로 잰 길이
스 커 트	허리둘레	단추를 잠근 상태에서 허리벨트 위쪽으로 돌려가며 줄자로 잰 거리
	배둘레	앞·뒤중심 맞추고 엉덩이둘레선/2 지점에서 ×2를 직선으로 잰 거리
	엉덩이둘레	앞·뒤중심을 맞추고 패턴에서 엉덩이둘레선 위치를 확인한 후 ×2를 직선으로 잰 거리
	밑단둘레	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트임의 여밈단을 잘 맞추고 접힌 옆선 아래단쪽을 반대쪽 지점까지 ×2를 직선으로 잰 거리
	스커트길이*	뒤 허리벨트 위쪽 중심에서 밑단까지를 수직으로 잰 길이
	주름박음선 길이	스커트를 편하게 놓고 허리벨트선 밑의 주름 박음 시작선에서 주름 끝선까지를 잰 거리

*표시부분은 김덕하(2000)의 연구에서의 계측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측방법을 표시한 것임.

<부록 6> 학년별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 및 교복만족도

<부록 6-1> 학년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학 년	변형 N(%)	변형 안함 N(%)	전 체 N(%)	χ^2
목둘레	1	13(5.9)	208(94.1)	221(100)	.557
	2	12(6.2)	183(93.8)	195(100)	
	3	16(7.5)	196(92.5)	212(100)	
어깨너비	1	46(20.8)	175(79.2)	221(100)	29.836***
	2	46(23.6)	149(76.4)	195(100)	
	3	91(42.9)	121(57.1)	212(100)	
앞품	1	30(13.6)	191(86.4)	221(100)	8.093*
	2	34(17.4)	161(82.6)	195(100)	
	3	51(24.1)	161(75.9)	212(100)	
뒤품	1	30(13.6)	191(86.4)	221(100)	9.044*
	2	33(16.9)	162(83.1)	195(100)	
	3	52(24.5)	160(75.5)	212(100)	
가슴둘레	1	34(15.4)	187(84.6)	221(100)	6.419*
	2	37(19.0)	158(81.0)	195(100)	
	3	53(25.0)	159(75.0)	212(100)	
허리둘레	1	52(23.5)	169(76.5)	221(100)	10.723**
	2	52(26.7)	143(73.3)	195(100)	
	3	79(37.3)	133(62.7)	212(100)	
진동둘레	1	30(13.6)	191(86.4)	221(100)	8.776*
	2	29(14.9)	166(85.1)	195(100)	
	3	50(23.6)	162(76.4)	212(100)	
블라우스 길이	1	37(16.7)	184(83.3)	221(100)	5.562
	2	40(20.5)	155(79.5)	195(100)	
	3	55(25.9)	157(74.1)	212(100)	
소매통	1	35(15.8)	186(84.2)	221(100)	12.421**
	2	35(17.9)	160(82.1)	195(100)	
	3	61(28.8)	151(71.2)	212(100)	
소매길이	1	30(13.6)	191(86.4)	221(100)	5.540
	2	30(15.4)	165(84.6)	195(100)	
	3	46(21.7)	166(78.3)	212(100)	

* $p < .05$ ** $p < .01$

<부록 6-2> 학년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변형의 차이

	학 년	변형 N(%)	변형 안함 N(%)	전 체 N(%)	χ^2
허리둘레	1	83(37.6)	138(62.4)	221(100)	2.759
	2	75(38.5)	120(61.5)	195(100)	
	3	95(44.8)	117(55.2)	212(100)	
배둘레	1	67(30.3)	154(69.7)	221(100)	2.133
	2	63(32.3)	132(67.7)	195(100)	
	3	78(36.8)	134(63.2)	212(100)	
엉덩이 둘레	1	102(46.2)	119(53.8)	221(100)	9.809**
	2	95(48.7)	100(51.3)	195(100)	
	3	128(60.4)	84(39.6)	212(100)	
스커트 길이	1	185(83.7)	36(16.3)	221(100)	1.122
	2	160(82.1)	35(17.9)	195(100)	
	3	170(80.2)	42(19.8)	212(100)	
밑단둘레	1	143(64.7)	78(35.3)	221(100)	.445
	2	124(63.3)	72(36.7)	196(100)	
	3	130(61.6)	81(38.4)	211(100)	
주름	1	115(63.2)	67(36.8)	182(100)	7.198*
	2	106(69.3)	47(30.7)	153(100)	
	3	132(76.3)	41(23.7)	173(100)	

* $p < .05$ ** $p < .01$

<부록 6-3> 학년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만족/불만족의 차이

	학 년	불 만 족		만 족	전 체	x ²
		크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목둘레	1	117(31.0)	8(2.1)	253(66.9)	378(100)	2.353
	2	95(30.8)	9(2.9)	204(66.2)	308(100)	
	3	92(29.5)	4(1.3)	216(69.2)	312(100)	
어깨너비	1	75(19.8)	46(12.2)	257(68.0)	378(100)	26.904***
	2	72(23.4)	41(13.3)	195(63.3)	308(100)	
	3	111(35.6)	22(7.1)	179(57.4)	312(100)	
앞폭	1	89(23.5)	41(10.8)	248(65.6)	378(100)	4.672
	2	85(27.6)	42(13.6)	181(58.8)	308(100)	
	3	87(28.0)	32(10.3)	192(61.7)	311(100)	
뒤폭	1	79(20.9)	40(10.6)	259(68.5)	378(100)	6.326
	2	77(25.0)	43(14.0)	188(61.0)	308(100)	
	3	80(25.7)	30(9.6)	201(64.6)	311(100)	
가슴둘레	1	82(21.7)	41(10.8)	255(67.5)	378(100)	5.306
	2	80(25.9)	40(12.9)	189(61.2)	309(100)	
	3	82(26.3)	44(14.1)	186(59.6)	312(100)	
허리둘레	1	117(31.0)	16(4.2)	244(64.7)	377(100)	4.339
	2	103(33.4)	20(6.5)	185(60.1)	308(100)	
	3	103(33.0)	23(7.4)	186(59.6)	312(100)	
진동둘레	1	59(15.6)	45(11.9)	273(72.4)	377(100)	3.588
	2	63(20.5)	34(11.1)	210(68.4)	307(100)	
	3	63(20.3)	37(11.9)	211(67.8)	311(100)	
블라우스 길이	1	73(19.3)	66(17.5)	239(63.2)	378(100)	2.076
	2	73(23.8)	52(16.9)	182(59.3)	307(100)	
	3	67(21.5)	52(16.7)	192(61.7)	311(100)	
소매통	1	59(15.6)	68(18.0)	251(66.4)	378(100)	6.012
	2	49(15.9)	53(17.2)	206(66.9)	308(100)	
	3	64(20.6)	40(12.9)	206(66.5)	310(100)	
소매길이	1	49(13.0)	39(10.3)	290(76.7)	378(100)	8.800
	2	49(15.9)	30(9.7)	230(74.4)	309(100)	
	3	66(21.2)	26(8.4)	219(70.4)	311(100)	

*** $p < .001$

<부록 6-4> 학년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만족/불만족의 차이

	학 년	불 만 족		만 족	전 체	x ²
		큰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허리둘레	1	170(44.9)	17(4.5)	192(50.7)	379(100)	33.294***
	2	97(31.4)	36(11.7)	176(57.0)	309(100)	
	3	101(32.3)	48(15.3)	164(52.4)	313(100)	
배둘레	1	134(35.4)	30(7.9)	215(56.7)	379(100)	11.109*
	2	86(27.8)	40(12.9)	183(59.2)	309(100)	
	3	90(28.8)	45(14.4)	178(56.9)	313(100)	
엉덩이 둘레	1	135(35.7)	32(8.5)	211(55.8)	378(100)	4.577
	2	91(29.4)	34(11.0)	184(59.5)	309(100)	
	3	100(31.9)	25(8.0)	188(60.1)	313(100)	
스커트 길이	1	143(37.7)	38(10.0)	198(52.2)	379(100)	2.696
	2	102(33.0)	30(9.7)	177(57.3)	309(100)	
	3	114(36.4)	36(11.5)	163(52.1)	313(100)	
밑단둘레	1	162(42.7)	15(4.0)	202(53.3)	379(100)	4.423
	2	118(38.2)	21(6.8)	170(55.0)	309(100)	
	3	119(38.0)	20(6.4)	174(55.6)	313(100)	

* $p < .05$ *** $p < .001$

<부록 6-5> 학년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학 년 교복만족도	1학년 (n=359)	2학년 (n=282)	3학년 (n=291)	F값
	M (S.D.)	M (S.D.)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0.038 (1.076)	0.086 (.870)	-0.036 -(1.018)	1.496
신분 상징적 만족도	-.167 (1.032) b	0.011 (.946) ab	.196 (.977) a	10.799***
상의 활동 불만족도	.124 (.970) a	-0.098 (1.000) b	-0.057 (1.024) ab	4.630*
관 리 불만족도	.225 (1.047) a	-.117 (.935) b	-.164 (.952) ab	15.404***
하의 활동 불만족도	-0.031 (1.035)	-0.006 (.963)	0.044 (.994)	.458

* $p < .05$ *** $p < .001$







<부록 7-2> 학교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교복 변형의 차이

	학 교	변형 N(%)	변형 안함 N(%)	전 체 N(%)	χ^2
목둘레	J	4(2.8)	138(97.2)	142(100)	14.628**
	S	2(1.7)	119(98.3)	121(100)	
	A	10(7.8)	119(92.2)	129(100)	
	J'	9(10.7)	75(89.3)	84(100)	
	P	16(10.5)	136(89.5)	152(100)	
어깨너비	J	18(12.7)	124(87.3)	142(100)	68.520***
	S	17(14.0)	104(86.0)	121(100)	
	A	55(42.6)	74(57.4)	129(100)	
	J'	21(25.0)	63(75.0)	84(100)	
	P	72(47.4)	80(52.6)	152(100)	
앞품	J	16(11.3)	126(88.7)	142(100)	17.641**
	S	14(11.6)	107(88.4)	121(100)	
	A	33(25.6)	96(74.4)	129(100)	
	J'	14(16.7)	70(83.3)	84(100)	
	P	38(25.0)	114(75.0)	152(100)	
뒤품	J	17(12.0)	125(88.0)	142(100)	12.552*
	S	17(14.0)	104(86.0)	121(100)	
	A	33(25.6)	96(74.4)	129(100)	
	J'	13(15.5)	71(84.5)	84(100)	
	P	35(23.0)	117(77.0)	152(100)	
가슴둘레	J	17(12.0)	125(88.0)	142(100)	19.088**
	S	15(12.4)	106(87.6)	121(100)	
	A	34(26.4)	95(73.6)	129(100)	
	J'	16(19.0)	68(81.0)	84(100)	
	P	42(27.6)	110(72.4)	152(1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7-3> 학교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교복 변형의 차이

	학 교	변 형 N(%)	변형 안함 N(%)	전 체 N(%)	χ^2
허리둘레	J	19(13.4)	123(86.6)	142(100)	38.676***
	S	24(19.8)	97(80.2)	121(100)	
	A	53(41.1)	76(58.9)	129(100)	
	J'	28(33.3)	56(66.7)	84(100)	
	P	59(38.8)	93(61.2)	152(100)	
진동둘레	J	8(5.6)	134(94.4)	142(100)	40.758***
	S	10(8.3)	111(91.7)	121(100)	
	A	29(22.5)	100(77.5)	129(100)	
	J'	16(19.0)	68(81.0)	84(100)	
	P	46(30.3)	106(69.7)	152(100)	
블라우스 길이	J	24(16.9)	118(83.1)	142(100)	28.204***
	S	9(7.4)	112(92.6)	121(100)	
	A	35(27.1)	94(72.9)	129(100)	
	J'	16(19.0)	68(81.0)	84(100)	
	P	48(31.6)	104(68.4)	152(100)	
소매통	J	6(4.2)	136(95.8)	142(100)	72.470***
	S	10(8.3)	111(91.7)	121(100)	
	A	41(31.8)	88(68.2)	129(100)	
	J'	16(19.0)	68(81.0)	84(100)	
	P	58(38.2)	94(61.8)	152(100)	
소매길이	J	10(7.0)	132(93.0)	142(100)	44.844***
	S	8(6.6)	113(93.4)	121(100)	
	A	30(23.3)	99(76.7)	129(100)	
	J'	11(13.1)	73(86.9)	84(100)	
	P	47(30.9)	105(69.1)	152(100)	

*** $p < .001$

<부록 7-4> 학교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교복 변형의 차이

	학 교	변 형 N(%)	변형 안함 N(%)	전 체 N(%)	χ^2
허리둘레	J	48(33.8)	94(66.2)	142(100)	9.514*
	S	44(36.4)	77(63.6)	121(100)	
	A	65(50.4)	64(49.6)	129(100)	
	J'	31(36.9)	53(63.1)	84(100)	
	P	65(42.8)	87(57.2)	152(100)	
배둘레	J	40(28.2)	102(71.8)	142(100)	9.989*
	S	33(27.3)	88(72.7)	121(100)	
	A	54(41.9)	75(58.1)	129(100)	
	J'	24(28.6)	60(71.4)	84(100)	
	P	57(37.5)	95(62.5)	152(100)	
엉덩이 둘레	J	71(50.0)	71(50.0)	142(100)	9.488
	S	50(41.3)	71(58.7)	121(100)	
	A	75(58.1)	54(41.9)	129(100)	
	J'	42(50.0)	42(50.0)	84(100)	
	P	87(57.2)	65(42.8)	152(100)	
스커트 길이	J	108(76.1)	34(23.9)	142(100)	4.867
	S	100(82.6)	21(17.4)	121(100)	
	A	108(83.7)	21(16.3)	129(100)	
	J'	70(84.3)	13(15.7)	83(100)	
	P	129(84.9)	23(15.1)	152(100)	
밑단둘레	J	62(44.3)	78(55.7)	140(100)	29.345***
	S	89(73.6)	32(26.4)	121(100)	
	A	87(66.9)	43(33.1)	130(100)	
	J'	57(67.9)	27(32.1)	84(100)	
	P	101(66.4)	51(33.6)	152(100)	
주름 박음선	J	81(57.0)	61(43.0)	142(100)	15.330**
	A	95(73.1)	35(26.9)	130(100)	
	J'	60(71.4)	24(28.6)	84(100)	
	P	117(77.0)	35(23.0)	152(1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7-5> 학교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학 교	불 만 족		만 족	전 체	x ²
		큼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목둘레	J	65(28.5)	8(3.5)	155(68.0)	228(100)	20.662**
	S	93(40.3)	2(.9)	136(58.9)	231(100)	
	A	38(22.0)	3(1.7)	132(76.3)	173(100)	
	J'	40(27.8)	3(2.1)	101(70.1)	144(100)	
	P	68(30.6)	5(2.3)	149(67.1)	222(100)	
어깨너비	J	53(23.2)	31(13.6)	144(63.2)	228(100)	9.011
	S	63(27.4)	28(12.2)	139(60.4)	230(100)	
	A	41(23.6)	18(10.3)	115(66.1)	174(100)	
	J'	33(22.9)	16(11.1)	95(66.0)	144(100)	
	P	68(30.6)	16(7.2)	138(62.2)	222(100)	
앞품	J	48(21.1)	31(13.6)	149(65.4)	228(100)	22.663**
	S	64(27.9)	41(17.9)	124(54.1)	229(100)	
	A	46(26.4)	14(8.0)	114(65.5)	174(100)	
	J'	39(27.1)	15(10.4)	90(62.5)	144(100)	
	P	64(28.8)	14(6.3)	14(64.9)	222(100)	
뒤품	J	48(21.1)	32(14.0)	148(64.9)	228(100)	9.867
	S	60(26.2)	33(14.4)	136(59.4)	229(100)	
	A	42(24.1)	16(9.2)	116(66.7)	174(100)	
	J'	34(23.6)	15(10.4)	95(66.0)	144(100)	
	P	52(23.4)	17(7.7)	153(68.9)	222(100)	
가슴둘레	J	37(16.2)	40(17.5)	151(66.2)	228(100)	34.288***
	S	73(31.6)	39(16.9)	119(51.5)	231(100)	
	A	40(23.0)	17(9.8)	117(67.2)	174(100)	
	J'	40(27.8)	13(9.0)	91(63.2)	144(100)	
	P	54(24.3)	16(7.2)	152(68.5)	222(100)	

** $p < .01$ *** $p < .001$

<부록 7-6> 학교에 따른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학 교	불 만 족		만 족	전 체	χ^2
		큼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허리둘레	J	69(30.4)	10(4.4)	148(65.2)	227(100)	14.367
	S	84(36.5)	20(8.7)	126(54.8)	230(100)	
	A	43(24.7)	10(5.7)	121(69.5)	174(100)	
	J'	48(33.3)	6(4.2)	90(62.5)	144(100)	
	P	79(35.6)	13(5.9)	130(58.6)	222(100)	
진동둘레	J	34(15.0)	30(13.3)	162(71.7)	226(100)	30.709***
	S	49(21.3)	45(19.6)	136(59.1)	230(100)	
	A	26(14.9)	13(7.5)	135(77.6)	174(100)	
	J'	31(21.5)	11(7.6)	102(70.8)	144(100)	
	P	45(20.4)	17(7.7)	159(71.9)	221(100)	
블라우스 길이	J	32(14.1)	60(26.4)	135(59.5)	227(100)	46.232***
	S	58(25.3)	48(21.0)	123(53.7)	229(100)	
	A	30(17.2)	19(10.9)	125(71.8)	174(100)	
	J'	29(20.1)	23(16.0)	92(63.9)	144(100)	
	P	64(28.8)	20(9.0)	138(62.2)	222(100)	
소매통	J	29(12.7)	44(19.3)	155(68.0)	228(100)	32.706***
	S	36(15.7)	50(21.8)	143(62.4)	229(100)	
	A	21(12.1)	17(9.8)	135(78.0)	173(100)	
	J'	30(20.8)	24(16.7)	90(62.5)	144(100)	
	P	56(25.2)	26(11.7)	140(63.1)	222(100)	
소매길이	J	27(11.8)	31(13.6)	170(74.6)	228(100)	23.263**
	S	34(14.8)	26(11.3)	170(73.9)	230(100)	
	A	22(12.6)	13(7.5)	139(79.9)	174(100)	
	J'	28(19.4)	12(8.3)	104(72.2)	144(100)	
	P	53(23.9)	13(5.9)	156(70.3)	222(100)	

** $p < .01$ *** $p < .001$

<부록 7-7> 학교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학 교	불 만 족		만 족	전 체	x ²
		큼의 불만족	작음의 불만족			
		N(%)	N(%)	N(%)	N(%)	
허리둘레	J	97(42.4)	33(14.4)	99(43.2)	229(100)	26.422**
	S	86(37.2)	32(13.9)	113(48.9)	231(100)	
	A	60(34.3)	10(5.7)	105(60.0)	175(100)	
	J'	53(36.8)	10(6.9)	81(56.3)	144(100)	
	P	72(32.4)	16(7.2)	134(60.4)	222(100)	
배둘레	J	73(31.9)	36(15.7)	120(52.4)	229(100)	13.280
	S	71(30.7)	32(13.9)	128(55.4)	231(100)	
	A	48(27.4)	15(8.6)	112(64.0)	175(100)	
	J'	51(35.4)	13(9.0)	80(55.6)	144(100)	
	P	67(30.2)	19(8.6)	136(61.3)	222(100)	
엉덩이 둘레	J	69(30.1)	45(19.7)	115(50.2)	229(100)	60.188***
	S	98(42.4)	13(5.6)	120(51.9)	231(100)	
	A	42(24.0)	17(9.7)	116(66.3)	175(100)	
	J'	46(31.9)	9(6.3)	89(61.8)	144(100)	
	P	71(32.1)	7(3.2)	143(64.7)	221(100)	
스커트 길이	J	72(31.4)	33(14.4)	124(54.1)	229(100)	41.987***
	S	115(49.8)	17(7.4)	99(42.9)	231(100)	
	A	43(24.6)	12(6.9)	120(68.6)	175(100)	
	J'	51(35.4)	13(9.0)	80(55.6)	144(100)	
	P	78(35.1)	29(13.1)	115(51.8)	222(100)	
밑단둘레	J	68(29.7)	17(7.4)	144(62.9)	229(100)	50.927***
	S	131(56.7)	9(3.9)	91(39.4)	231(100)	
	A	55(31.4)	4(2.3)	116(66.3)	175(100)	
	J'	55(38.2)	12(8.3)	77(53.5)	144(100)	
	P	90(40.5)	14(6.3)	118(53.2)	222(100)	

** $p < .01$ *** $p < .001$

<부록 7-8> 학교에 따른 교복 만족도의 차이

학 교	J (n=208)	S (n=218)	A (n=162)	J' (n=139)	P (n=205)	F값
	M (S.D.)	M (S.D.)	M (S.D.)	M (S.D.)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758 (.824) a	-.657 (.956) c	-.087 (.858) b	-.175 (.955) b	.118 (.786) b	72.517***
신분 상징적 만족도	.339 (.982) a	.220 (.969) a	-.315 (1.028) b	-.104 (.897) b	-.260 (.942) b	17.655***
상의 활동 불만족도	.217 (1.039) a	-.011 (.994) ab	-.028 (.920) ab	0.078 (.904) ab	-.240 (1.042) b	5.764***
관 리 불만족도	.072 (.893) b	-.261 (.925) c	.066 (.993) bc	.449 (1.097) a	-.105 (1.013) bc	12.118***
하의 활동 불만족도	-.162 (.967) b	.417 (.840) a	-.078 (1.114) b	-.297 (.254) b	-.016 (.995) b	15.043***

*** $p < .001$

ABSTRACT

A study on the alternation and size,uniforms satisfaction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uniforms in Jeju

Kim Hye-Jung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won Sook-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high school girl students' the alteration of school uniforms concerned about both siz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and to improve the size of school uniforms.

The subjects were 1,007 girls attending general and technical high schools in Jeju island, five manufacture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from July 8th to sept. 20th.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statistically for frequencies, percentage deviation,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t-test, one-way ANOVA, chi-square tes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lteration of school uniforms, it was found that as many as 67.3 percent of the girls interviewed alternated their uniforms. It was appeared that skirts alternated more than blouses as a way of shortening on the blouses alternated orderly acromion to acromion breadth, waist circumference ,blouse length and on skirts, skirt length, hip circumference alternated orderly. The main reason of alternation is ill-fitting uniforms. most of them had a positive idea to alternate uniforms. As a result of a reviewing the girl students' attending general and technical high school and the alternation of school uniforms difference that the latter alternated their uniforms much more than the former. It was found that all part of blouses and waist circumference of skirt, abdominal

circumference of skirt, hip circumference of skirt, hem circumference can be appeared significant differences. As a result of a reviewing alternation of school uniforms difference used by body type that the thin body size and standard body size of perception alternated school uniforms more than the obese body size of perception and each part of alternation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such as sleeve length of blouse, waist circumference of skir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each part of school uniforms siz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school uniforms dissatisfaction is not so much small size as large size. It is appeared that skirt had dissatisfaction rate more than blouse. The large part of dissatisfaction appeared waist circumference of blouse, hem circumference of skirt and the small part of dissatisfaction appeared blouse length, abdominal circumference of skirt. As a consequence of reviewing, the girl students' attending general and technical high school siz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differences that blouse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such as neck circumference, front interscye breadth, back interscye breadth, armhole circumference, blouse length, width of sleeve, sleeve length and all part of skirts. The girl students' attending technical high school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uniforms than those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 where as they were more dissatisfied with a large part of their blouses, while those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 were more dissatisfied with a small part of their blouses. On the other hand, both of them had high dissatisfaction toward a skirt. As a consequence of reviewing siz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used by body type. blouse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such as neck circumference, front interscye,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armhole circumference, width of sleeve and skirts had too both waist circumference and abdominal circumference. The standard body size of perception had satisfaction rate more than the obese body size of perception that had dissatisfaction rate more than both thin body size and the standard body size of perception. As a consequence of reviewing alternation of school uniforms siz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differences. The girls experienced alternating their uniforms had high satisfaction rate than the other girls such as waist circumference of skirt, skirt length, hem

circumference.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irl students' attending general and technical high school satisfaction with uniforms difference that the former had satisfaction with status symbols than the latter but they had dissatisfaction both blouse and skirt activity. On the other hand, the girl attending technical high school were appeared managing dissatisfaction more than the girl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 As a result of analyzing satisfaction with uniforms difference used by body type that the girl perceived obesity had dissatisfaction both blouse and skirt activity more than the girl perceived standa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lternation of school uniforms satisfaction difference that the girl no experience alternating their uniforms had high satisfaction with status symbols but dissatisfied with skirt activity. As a result of analyzing satisfaction with uniforms siz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that the girl dissatisfied because of small size were satisfied both factors-aesthetics and fashion more than the girl dissatisfied because of large size. The girl dissatisfied because of small size dissatisfied skirt activity more than the girl satisfied or not because of large size. In contrast, the girl dissatisfied due to a large size dissatisfied skirt activity more than the girl satisfied or not due to a small size.

Fourth, as a result of sizes used by manufactures. It was found that manufactures used different sizes, colors in spite of the same size code because most of sizes, colors changed annually. This kind of different sizes, colors hard to sell school uniforms to students' even more one of the chaotic reasons to them purchases or repurchases it. Both the girl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 and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didn't have any different sizing system among three manufactures but they recognized to need different sizing tolerances for both of them. As a result of reviewing control body dimension, size code number, size designation, product size used by manufactures. It was found that control body dimension wasn't diversified and unified in the manufactures. besides, each of the manufacture's product size had a quite different distinction, while the different of maximum, minimum was appeared each part of body.

감사의 말씀

본 논문을 시작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권숙희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부족한 논문을 심사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으로 작은 부분까지 수정 보완에 도움을 주신 홍희숙 교수님, 장애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깊은 관심으로 격려를 주신 이혜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자료수집을 기꺼이 도와주신 한영숙 선생님, 부지원 선생님, 김정훈 선생님, 송승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대학원 생활하면서 늘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신 김미정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문지와 논문 교정에 도움을 주신 현지은 선배님과 아울러 이 논문이 완성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홍선철 선배님과 현명관 오빠를 비롯한 친구 장두혁, 백은진, 부병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경희 선생님, 김현미 선배님, 고은숙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2001년 12월

김 혜 정